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복음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이 명령하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선포해야 할 사명 주셨음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여, 충성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2년 9월 17일 (토) 제 1890 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신학교, 세상적 삶과 “성장 신화” 를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곳

CT, 최근 신학교 다룬사이징 상황에서도 목회자들에게 여전히 신학 학위가 필요한 이유

노아 R. 카거(Noah Karger)는 고든 콘웰 신학교의 MDiv 학생이며 글로벌 기독교 연구 센터의 연구 조교로 섬기고 있다. 그는 최근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공식 신학 교육은 복음

주의 교회 내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신학교를 통한 신학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한다(Pastors Still Need Seminary Degrees).

제가 살고 있고, 다녔던 고든 콘웰 신학교(Gordon-Conwell)가 지난 10년간 입학률이 50% 이상 꾸준히 감소하자 본교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미국인의 3분의 1 이상이 계속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복음주의자로 인식하고 있기에, 신학교의 쇠퇴는 어떤 면에서 수수께끼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일부 복음주의자들이 신학교를 장애물로 생각하며, 점점 더 불필요한 것으로 여긴다는 사실이다.

저는 학부 1학년에서 2학년 여름 학기에 한 지역 교회가 시작한 월요 아침 모임에 참석하는 과목을 수강했다. 그들은 주일 출석 인원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기에 사기가 왕성해져 있었다. 새신자 등록 카드를 살펴보면 그들은 1년 만에 그날이 “지금까지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주일”이었다고 놀라워했다.

젊고 야심찬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저는 교회가 어떻게 성장을 추구하고 측정하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이런 현상이 좋은 일인지 어떻게 아십니까?”고 물었다. 담임 목사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글쎄요, 건강한 것은 자라는 법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철학입니다.”

만약 성장하는 것이 의심할 여지 없이 영적 성장의 신호라



는 그분의 발언이 옳다면 고든 콘웰 신학교는 무덤으로 향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 또한 옳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어떤 것의 영적 가치가 엑셀 스프레드시트로 결정될 수 없다고 진지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성장하고 번영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필요하다. 오히려, 죽음의 삶의 현상이 되고 패배가 승리의 현상이 되는 낯은 틀, 즉 십자가 정신이 필요한 것이다.

고든 콘웰 신학교가 등록과 예산 면에서 모두 줄어들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곳은 여전히 살아 있으며, 자라가고, 영혼이 주의력을 가지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곳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계산기가 계속할 수 없는 비밀을 상기시켜줌으로써

씨, 그들의 일을 계속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학교가 필요하다.

신학교는 오랫동안 목사가 되는 수단으로 이해되어 왔다. 저는 이제 MDiv 과정을 수료했다. MDiv를 마쳤다는 말은 일자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밝혀진 바와 같이, 요즘 복음주의 교회들은 1단계 즉 MDiv에 대해 훨씬 덜 신경을 쓰고 있으며, 목사 지망생들은 신학교는 불필요하고 심지어 아주 나쁜 생각이라는 말까지 듣고 있다.

저는 이 조언을 직접 들었고, 논쟁은 대개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왜 신학교여야 하는가? 재정적으로 무책임하고, 탈진할 위험이 있고, 해야 할 공부도 너무 많고...” 맞다. 이 모든 것들이 좋은 지적이다. 그러나

만약 신학교가 여러분들을 위해 불공정 거래를 한 것이라면, 저는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은 왜 직업 사역을 추구하고 있는가?

만약 여러분이 평생을 사역의 현장에서 일하기를 기대한다면, 3년제 신학교 프로그램에 전념하는 것이 불합리한 기대는 아니다. 의사와 변호사를 생각해 보면 된다. 여러분은 독학으로 공부한 사람이 여러분의 다리를 잘라내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신학교는 여러분의 직업에 대한 헌신을 공식화하고 소통하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신학 교육은 목사로서의 소명에 대한 헌신과 인내의 계책을 세울 수 있다.

(3면으로 계속)



Z세대의 달라진 사랑법, “시추에이션십”!

BBC, 친구와 연인 사이의 회색지대를 가리키는 ‘시추에이션십’을 선호하는 연애 패턴 분석 보도

같이 영화를 보거나 밀크셰이크를 나눠 마셨다고 연애가 시작되던 시절은 지났다. 요즘 젊은 세대의 연애에는 섬세하고 때로는 복잡한 ‘작은 단계’들이 있다.

연구에 따르면, 연애와 섹스를 대하는 Z세대의 태도는 이전 세대와 다르다. 특히 더 현실적 관점에서 사랑과 섹스를 바라보고, 이후에도 과거와 달리 현실적이고 낭만적인 관계 구축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로맨스와 친밀한 행위에 완전히 무관심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각자의 삶에 딱 맞는 욕구와 니즈를 충족하고자 새로운 방법을 모색한다. 이러한 변화는 친구와 연인 사이의 회색지대를 가리키는 ‘시추에이션십’을 등장시켰다.

전문가도 정의 내리기 어려워하던 관계의 회색지대는 시추에이션십이란 이름을 받았고 Z세대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개인의 성적 취향과 시추에이션십을 집중 연구하는 엘리자베스 암스트롱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 시추에이션십은 섹스, 친밀감, 교제 등의 욕구를 해결하지만, 그 관계가 항상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시추에이션십을 받아들이고 있다 (‘Situationships’: Why Gen Z are embracing the grey area).

2020년 후반 주목받기 시작한 뒤 올해는 사상 최대의 구글 검색량 트래픽을 기록하기도 했다. 암스트롱은 인종, 성별, 성적 지향을 불문하고 전 세계가 시추에이션십을 주목한다고 덧붙였다.

(2면으로 계속)



2면 발행인 칼럼 김성국 목사



4면 푸른초장 양준길 목사



8면 말씀과 땅 박성현 박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카운
(323) 737-7699
인터넷 소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7
지의학 박사 이규성 원장
진.료.인.내 - 치아임플란트 - 구강외과/틀니 - 보철/지교 - 미용성형지교 - 산전 및 잇몸치료

기초반: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중급반: 매주 금요일 오전 10:30
문 의: 714-470-4563
말씀과 땅
말씀을 묵상하며 켈리를 배우는 켈리그래피 클래스가 O.C.와 L.A. 지역에서 오픈되었습니다.

2022 다민족 연합 기도대회

Return to the Lord!

Repent, Restore, and Revive

하나님의 비상 소집에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로 모였듯이 우리 모두 다민족 기도대회로 모입시다!

청교도들이 성경의 기초 위에 세운 미국이 지금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밖에 없는 위기입니다. 미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미국을 향해 이제라도 성회로 모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돌아오면 회복과 부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미국은 반드시 부흥을 통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민족들이 모두 함께 성회로 모여 하나님께로 돌아와 긍휼과 회복과 부흥을 구하는 복된 자리를 준비하고 소중한 당신을 초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셨나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욥2:12~28)

일시 2022년 10월 2일(주일) 오후 4시
장소 은혜한인교회 (150 S. Brookhurst St Fullerton, CA, 92833)

대회 조직
고문: 박희민목사, 송정명목사, 김준근장로, 김영길목사, 김인식목사, 한기형목사, David Andrade, Dion Elmore, Jorge Fuentes, Allan Parker, Walter Tucker

대표 대회장: 한기홍 목사

공동대회장: 강준민, 김경진, 김한요, 노창수, 민경엽, 민종기, 심상은, 박성규, 신승훈, 정영희, 진유철, 최홍주 (목사, 가나다순)
준비위원장: 강순영목사 (310 995 3986), 공동준비위원장: 심상은목사 (714 722 4805)
사무총장: 강태광 목사 (323 578 7938)

주관: 다민족연합기도대회 준비위원회
주최: 청교도신앙회복운동본부, OC교협, JAMA, 성시화운동본부, KACC, 은혜한인교회

발행인 칼럼

광야의 영성



김성국 목사 (권장장로교회 담임)

지난 8일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하였다. 따뜻한 어머니 리더십을 보여 준 여왕의 죽음으로 영국민은 물론 세계 많은 사람이 애도하고 있다. 지금 영국에는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이고 있고 19일로 예정된 장례식을 비롯하여 언젠가 치를 할 3세의 대관식등 영국 왕실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동서고금 모든 왕실에는 권력과 명예와 재물, 그리고 온갖 화려함과 사치스러움이 가득 찬 곳이다. 모든 왕실의 역사를 보면 그 찬란함 이면에는 한계와 갈등과 아픔도 있다. 특히 영국 여왕이 그랬다. 여왕의 재위 70년 동안 그가 주도적으로 역사

의 흐름을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여왕 가정 안에 불쌍사나운 다름과 불거진 갈등의 소식도 끊임없었다. 사람들이 영국 왕실에 관심을 두긴 하지만 그곳이 이 시대를 위한 소망의 자리라고 여기지는 않는다. 아 이러니하게도 현실은 다르다. 왕실에는 진정한 소망이 없고 그 안에서 빛어지는 문제를 번연히 알면서도 자신의 삶을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왕실 같은 삶으로 치장하고 지향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내용이야 어떻든 왕실이 받는 주목처럼 자신도 이 세상에서 다른 이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싶은 것이다. 예수님은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가 왕궁에 있다고 말씀하심으로 그곳이 어떤 곳인지 분명히 알려주셨다. 그곳을 동경(憧憬)하지 말라는 말씀이다.

왕궁에 비해 광야는 어떤가. 왕궁의 화려함은커녕 기본적인 먹고 입고 잠잘 곳도 마땅찮은 곳이 광야이다. 위험하고 쓸쓸한 빈들이 광야다. 아무도 광야를 주목하지 않는다. 누군가로부터 따뜻한 위로나 살가운 연락도 없다. 인간적인 기대는 번번이 실망으로 끝나는 곳이 광야이다. 그러나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광야의 영성이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눅7:24-26) 예수님은 광야에서 선지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다. 광야에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는 선지자와 같은 영성이 우리 모두에게 옳고 필요하다.

광야는 나의 선택이나 우연히 이르게 된 자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는 그들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이다. 광야가 어떤 곳인지 온 삶으로 체득한 어느 신앙인의 고백을 들어 보시라.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그렇다. 광야가 하나님이 택하여 보내신 곳이라면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곳이다. 보내신 그곳은 사명이 있는 곳이기엔 무료(無聊)한 곳일 수 없다.

기독교의 역사는 왕실의 고고(孤高)한 외양(外樣)을 기술(記述)한 것이 아니다. 광야의 고독(孤獨)한 눈물을 잉크 삼아 기록했다. 왕궁을 버린 광야의 예수님처럼 광야를 감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었다. 왕궁을 꿈꾸지 말자. 광야를 사모하자. 이 땅의 왕궁은 자신만을 돋보이게 하려다가 곧 피폐함을 맛볼 곳이고, 이 세상의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곧 천국에 이르게 될 곳이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왕궁에 있지 않고 광야의 영성을 가진 그대이다.

균형잡힌 소그룹, 교회 성장 밑거름!

리더십저널, 레이드스미스목사가 소개하는 4가지 전략포인트 제시

세상일이나 사역이나 모든 일은 균형 잡는 일이 중요하다. 균형을 잡을 때, 일과 사역에 최대한의 효과를 가져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는 소그룹 사역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렇다면 소그룹 인도자는 균형 잡힌 소그룹을 세우기 위해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할까? 소그룹 사역 단체

(Communities of Purpose for the Small Group Network)을 이끌고 교회(Christ Fellowship Church)를 섬기는 레이드스미스(Reid Smith) 목사는 “균형 잡힌 소그룹을 세우기 위한 전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4 STRATEGIES FOR BUILDING A BALANCED SMALL GROUP).

1. 기도하라! 소그룹 진행 때 순환유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2. 예비 인도자를 세우라! 소그룹 인도자는 소그룹의 비전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예비 인도자를 세워야 한다. 그들과 함께 소그룹에 대한 계획과 생각을 공유하며 피드백을 주고 받아야 한다. 이 사람은 인도자가 소그룹 구성원들과 소그룹을 통해 이뤄질 비전을 공유하며 소그룹을 인도해갈 때, 인도자의 말과 뜻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며,
3. 시작을 극대화하라! 소그룹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해 더 잘 알고, 각 사람이 소그룹의 구성원이 된 결과로 어떻게 성장해갈 길 바라는지를 발견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구성원이 영적 성장 목표를 발견하고, 향후 소그룹을 통해 이뤄지는 일을 도와야 한다. 각 구성원이 영적으로 더 견고해질 방법을 설명하고, 영적 은사가 이 일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4. 영적 은사를 활용하라! 소그룹 인도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영적 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소그룹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고 믿어야 한다(고전 12:7). 소그룹 구성원들은 서로에게 필요한 피드백을 공유하고 서로를 격려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은사를 확인하고 믿음과 담대함으로 은사를 발휘해야 한다. 결국은 모든 전략 중에 마지막 전략은 균형 잡힌 소그룹을 세우는 일에 가장 중요한 열쇠이다. 모든 소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독특한 예술 작품을 만들기 위해 서로 섞일 수 있는 고유한 신적 팔레트(divine palette of colors)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

Z세대의 달라진 사랑법...

(1면에서 계속) 특히 젊은 층에서 시추에이션십이라는 용어가 탄생하고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상황 그 자체가 사랑과 성을 바라보는 Z세대의 방식이 과거와 어떻게 다른지 많은 것을 보여준다. 시추에이션십은 보통 두 사람 사이에서 정서적, 육체적 연결을 수반하는 암묵적 합의에 기반하지만, 배타적이고 혁신적인 전통적 관계 관점에서 벗어나 있다. 시간이 한정적이거나 상황상 가벼운 관계가 가장 적합하겠다는 생각에서 시추에이션십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 가령, 졸업 후 취업할 직장에 따라 주거지가 바뀔까 봐 깊은 관계를 주저하는 대학 졸업반 학생 2명을 예로 들 수 있다.

암스트롱은 시추에이션십의 인기를 '관계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저항으로 설명했다. '관계 에스컬레이터'란, 연인의 관계가 선형 구조로 발전해 동거, 약혼, 결혼과 같은 전통적 이정표 달성에 목표를 둔다는 개념이다. 시추에이션십은 "관계가 더 발전하지 않을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시간 낭비'라는 개념"에 반대하며, 이렇게 생각하는 Z세대가 증가 중이라는 것이다. 이때,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관계의 회색지대를 끼어 수용한다. 암스트롱에 따르면, Z세대는 "어떤 이유든 시추에이션십이 현 상황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지금 당장 '관계의 발전'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일부 연구도 비슷한 결론을 도출했다. 미국 톨레인 대학의 리사 웨이드 사회학 부교수는 2020~2021년 150

명의 학부생을 인터뷰했다. 그 결과, Z세대가 관계 정립을 주저하거나 심지어 관계 발전에 대한 욕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관찰했다. 웨이드 부교수는 연구에서 "마음을 숨기는 것이 꼭 요즘 젊은 층의 특성만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Z세대는 특히 감정 공유를 꺼린다고 설명했다. 틱톡이나 트위터 사용자(특히 Z세대)는 SNS에서 시추에이션십 사연을 널리 공유한다. 틱톡에서 시추에이션십 태그(#situationship)가 붙은 영상은 8억3900만 회 이상 조회됐고, 비슷한 태그(#situationships)의 영상도 수백만 조회 수를 기록했다. 대중문화도 이 시류를 반영한다. 유명 연예 프로그램 러브 아일랜드 영국에도 시추에이션십이 등장하고, 밀레니엄 세대 스웨덴 가수 스

노 알레그라도 시추에이션십을 곡의 제목으로 붙였다. 26세의 아만다 허먼은 친구들과 서로의 시추에이션십을 비교할 때마다 "우리 왜 이렇게 똑같냐며 웃는다"고 말한다. 텍사스에 거주하는 허먼은 틱톡에 시추에이션십 경험을 올렸다. 지금까지 나는 대화와 관찰한 관계를 바탕으로, 허먼은 시추에이션십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Z세대와 젊은 밀레니얼 세대의 데이트 문화에서는 이런 방식이 점점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먼은 시추에이션십 상태로 1년 이상을 보냈다. 본인의 경험을 틱톡에 올렸을 때 거의 800만 조회 수가 나왔다. 많은 댓글이 각자의 시추에이션십을 이야기했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상 ■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대표)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23, July 4, and Nov 26.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2022년 제5차 PGM 세계전문인선교대회 2022 5TH WORLD MISSION CONFERENCE

중단없는 선교 God's Mission Never Stops

저녁 집회 10월 5일 수 10월 6일 목 10월 7일 금

류응렬 목사 와싱턴 중앙장로교회 | 최종상 선교사 AMNOS Ministries | 호성기 목사 필라델피아교회/PGM 국제대표

10.6 THU: 호성기 목사, 김영민 선교사, 조영태 선교사, 김은범 목사, 고훈 목사, 설대역 목사

10.7 FRI: 김기석 목사, 양충언 목사, 고대은 목사, 이상현 목사, 한인철 목사, 조재언 목사

선교세미나: 10.6 THU, 10.7 FRI

일시: 2022년 10월5일(수) - 7일(금) | 저녁집회 오후 7시 30분

장소: GSO 공향이움 (GSO 공향이움이 어려운 경우 RDU 공향이움) | 그 외 공향이움시 라이드 개별준비

등록비: 개인 \$300, 부부 (2인) \$500 (숙식포함) | 지역등록 \$100 (식대포함)

문의: PGM 국제본부 admin@pgmusa.org | 610-397-0484

QR 코드를 통해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선교세미나와 더불어 PGM 선교사님들의 선교전략 및 선교현황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선교강의도 함께 진행됩니다.

신학교, 세상적 삶과...

(1면에서 계속)

그런데도 복음주의 세계의 일부 사람들은 목회자들의 정식 훈련을 기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들의 기준을 상당히 낮춘 것 같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오늘날에는 그 누구도 적절한 훈련을 받지 못한 목회자가 그들의 구원을 해줄 수 있다고 믿지는 않는다. 그러나 적절한 훈련을 받지 못한 의사가 그들을 다치게 할 수 있다고는 믿는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들의 목회자가 누구인지보다 그들의 의사가 누구인지에 대해 훨씬 더 신경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경우는, 우리가 아무리 자기 스스로를 심각하게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이나 우신이라는 우리의 확신을 저버리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나타낸다.

오늘날은, 신학교 밖에서 목회자를 위한 기초 지식과 목양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해 오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의 편리함이 공식적인 신학교육을 무용지물로 만들지는 않는다.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성경 주석서들조차 신학교 학위만큼 총체적인 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 거기에 더해, 자기 스스로 하는 연수가 같은 양의 시간과 돈의 희생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비공식적인 신학 훈련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높아지고 있

는 것은 좋은 일이며,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공인된 신학교들이 제공하는 저 즉 어느 정도의 능력과 아마도 더 중요하게는 헌신을 확인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고, 보편적인 방법을 대체할 수는 없다.

지름길은 없으며, 그것은 신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목회를 위해 준비한다는 것은 많은 연구와 영혼의 훈련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학교는 바로 그 훈련을 위한 이상적인 장소이다. 제나 히츠(Zena Hitz)가 주장하듯, "지적 작업이 요구되는 목상"이 도피주의의 형태를 취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가 무엇인지를 고려하기 위해 우리의 의제를 제쳐놓을 수 있는 경건한 거리두기 장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결국, 신학교는 영적 성장을 위한 유일한 기회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일상의 평범한 삶이 제공하지 못하는 깊은 주의력과 형성적 고독을 위해 필요한 공간과 시간을 제공하여, 신학생들이 협력적 환경의 맥락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설명되는 그들의 신앙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많은 신학생들이 신학교에서 써를 하는 영적 시련과 신앙의 위기가 궁극적인 목표 도달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간주될 수도 있다. 그러나 냉소주의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나 환경을 피하려 하면 영적 피

곤 현상 역시 피할 수 없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으며, 목회자의 임무는 고통과 의심을 은근슬쩍 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그것을 헤쳐나가는 것이다.

그 사역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무거운 짐과 직면할 때 스스로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Shatov in Demons')의 유명한 말처럼, "세상을 정복하고 싶다면, 자신을 정복하라." 목회자도 마찬가지이다. 여러분이 양 떼를 돌보고 싶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먼저 돌보시기 바란다. 끈질긴 공부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초라함과 교만으로 유혹받을 때 하나님과 씨름해야 한다. 여러분의 사역은 언제나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시한 것처럼 목회자들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힘쓰십시오"(디모데후서 4:2, 새번역)라는 구절처럼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클레르보의 베르나르(Bernard of Clairvaux)는 "받은 것을 쏟아내는" 은하와 "자신을 잃지 않고 넘치는 것만 배출하는" 저수지를 구분한다. 그는 당시 교회에 저수지가 "너무 희귀했음"을 관찰했는데, 오늘날에는 얼마나 더 그럴것인가?

20세기 프랑스의 활동가, 철학자 신비주의자인 시몬 베유(Simone Weil)는 그녀의 책(Waiting for God)에서 "기독교 연구 개념의 핵심은 기도가 주의력으로 이루어진다

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수학이든 신학이든 학문에 참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본질적으로 기도 훈련이라고 믿었다. 결국, 거기 앉아 있을 능력 없이, 어떻게 자신의 골방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로마서 12:2) 신학교에 간다. 이 변혁의 사역을 통해 목회자들은 세상과 세상의 성공 척도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할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신학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 삶과 "성장 신화"를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곳이다. 우리가 모든 변혁적 영광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곳은 바로 이 자기 계발적인 과업이다. 이 막간의 이슈는 완수해야 할 과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론에 관한 것이다. 그렇기에, 신학교는 단순한 수단인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기도 하다.

그러니 계속해서, 고든 콘웰과 다른 복음주의 신학교들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예측해 보라!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을 것이다. 과제를 작성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말이다.

시론
하나님이여 교회를 보호하소서



이동진 목사 (성화장로교회)

여왕(Queen)이라는 말이 주는 무게는 막강하다. 더구나, '해가 지지않는 나라'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막강한 힘의 나라였던 영국에서 70년을 여왕의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은 여왕이 가진 존재감의 무게를 충분히 가늠하게 만든다. 전 세계에 수많은 식민지를 다스리며, 하루 24시간 지구 어딘가에서는 영국령(英國領)의 땅에 해가 비치고 있던 시절이 지나가 버렸듯이 여왕의 70년이 조용히 저물었다. 이제 장례식을 거처며 여왕의 육체는 땅의 흙으로 돌아간다.

올림픽 경기에서 영국의 국기가 올라갈 때 들려오는 찬송가에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찬송가가 영국국가 대신에 울려 퍼지는 거지? 답은 간단하다. 이 찬송의 멜로디가 영국국가이기 때문이다. 영국과 호주, 캐나다, 지브롤터 등 영국 연방국들에서도 사용되지만, 각자 자기들의 비공식 국가를 갖고 있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웨일스 그리고 북아일랜드 등 영국을 구성한 4개국은, 공통 행사에서는 네 나라 모두가 공식 지정된 국가인 'God Save the Queen'을 부르는데 이 멜로디가 바로 찬송가 '되나저 있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여왕 폐하를 지켜주소서, 여왕 폐하에게 승리와 복과 영광을 주소서'라고 노래하는 영국 국민들의 간구에도 불구하고, 여왕은 떠났다. 이제 이 땅에서 사라지고 그 명예의 자리에는 73살의 찰스 왕세자가 올랐다. 여왕의 자리가 찰스 왕세자의 자리로 바뀌면서 국가의 가사도 바뀌게 되었다. 이전 Queen이 아니라 King을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노래가 되었다. 군주(君主)가 바뀌어도 군주를 보호할 분은 하나님(God Save the King)뿐임을 선포하는 영국국가의 가사가 이 나라의 신앙고백이다.

한편, 화폐와 동전, 우표 등에는 엘리자베스 2세의 얼굴 대신에 찰스 3세 왕의 얼굴로 바꾸고, 왕실 깃발인 Royal Standard(王旗)의 모양도 현재 4간(사자 네 마리 모양)에 웨일즈를 상징하는 사자 한 마리가 더 들어가는 모양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를 시행하는 대표적 나라인 영국에서 왕은 실제적 권력은 거의 없지만, 그 자리가 가지는 상징 안에는 막강한 권위가 주어져 있다. 일제강점기가 마무리될 때 그 권위의 상징인 일본의 히로히토의 항복선언은 권력의 무너짐보다 더 강력한 파괴력을 보여주었다. 하물며 70년을 이어온 여왕폐하의 자리가 가지는 권위는 실로 대단했다. 여성으로, 90대 노인이었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가진 것은 바로 그 권위였다. 그 권위 안에는 권력도 능력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가장 파워풀한 것은 권위였다. 그 권위 앞에 모든 사람은 존경과 경외와 겸손을 보였던 것이다. 그 '권위'가 Queen의 서거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새로운 King의 권위가 세워지고 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재(主宰)이시다. 천황이나 여왕 폐하의 권위를 다 향한다 해도 하나님의 권위에 비할 수 없다. 하나님의 권위에는 그 어떤 힘과도 비교할 수 없는 권력과 권세는 물론 창조성과 생명력과 영원함이 담겨져 있다. 우리는 그 권위를 믿고 따르는 것이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최근에 다시 사이버, 이단들이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다. 신천지는 더 적극적으로 영상활동 등을 통해 힘을 과시하고 있고, 돌나라(엘리아복음선교원) 교주인 박명호는 지난주 방영된 PD수첩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다시 드러났듯이 브라질에 대형 농장을 세우고 박명호 왕국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왕이 서거하고 왕세자가 즉위하면서 Queen이 King으로, 우표와 화폐의 모양이 바뀐다 해도 영국국가는 '하나님이여 왕을 보호하소서'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나 교인들 중에 꼭 이단 사이비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누가 진정한 권위자이신지를 헛갈리는 영적 무지함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오호, 통재라. '하나님이여, 이 시대 교회를 구원하소서'라고 가사를 바꾸어 노래하면 바른 교회들로 바뀔 수 있을까.

djee7777@gmail.com

Z세대의 달라진 사랑법...

(2면에서 계속)

의료 컨설턴트인 허먼은 원격 근무를 하고, 자주 여행하며, 한 번에 몇 달씩 새로운 도시에서 살아본다. 이때 시추에이션십이 더 큰 자유와 자율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오즘 우리 세대의 연애 문화는 혼란스럽고 정성없어요. (Z세대는) 그냥 이렇게 바쁘게 살고, 여기에 맞춰 연애도 진화한 것 같아요."

Z세대가 데이트를 시작할 가운데, 사랑을 찾는 여정은 현대 사회의 다양한 장애물이 따라붙는다. 예를 들어, 팬데믹은 상대를 만나는 일반적인 방법과 데이트 방식

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종종 후회를 남기는 온라인 데이트에도 많은 사람이 유입됐다.

또한, 젊은 세대는 과거와 달리 의도적으로 연애를 중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기 후 위기, 인플레이션 급등, 불 안정적·사회적 격변과 함께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직면한 젊은 세대는 더 많은 사회적 운동에 참여하고 개인적, 직업적, 재정적 안정성 모색을 우선시한다. 웨이드 부교수는 "오즘 세대는, 깊은 관계가 학업이나 경력을 방해할 수 있고, 과몰입에 주의하지 않으면 타인 때문에 인생의 궤도가 바뀔 수 있다고 말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결과적으로 시추에이션십은 인생의 다른 부분도 잘 챙

기면서 낭만적·성적 정체성을 여행하려는 Z세대에게 최선의 선택지일 수 있다. 암스트롱은 이 현상이 "선택의 폭을 다양화"한다며, 이 화색지대를 피하기보다 선호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중이라고 덧붙인다.

물론, 이 모호한 관계에도 불안정성과 리스크는 있다. 이론상, 두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숨김없이 보여주고 투명한 시추에이션십 조건에 동의할 때 시추에이션십이라는 그릇에 "절저한 정직함"이 담긴다는 것이 웨이드의 설명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두 사람의 우선순위가 조율이 어려울 수 있으며, 서로 시추에이션십에서 원하는 바가 다를 때 끝이 나볼 수 있다. 가장 흔하게는

한쪽만 헌신적인 관계를 원하게 됐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변화가 두려워 제대로 된 대화도 없이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추에이션십에 대한 주목은 앞으로 젊은 세대가 사랑과 성을 바라보는 방법의 변화를 시사한다. 과거 많은 이들이 꺼렸던 화색지대는, 이제 마음이 가는 대로 나간 이들에게 만족스러운 중간지대가 됐다.

허먼은 그 중간지대에 완벽히 만족한다.

"내 선택이고, 내 결정이고, 내 행복이에요. 내게 아주 잘 맞고요. 마음이 편하고 이 길 이 맞고 느낀다면, 결과를 걱정하지 마세요."

Worldwide Church Directory (Worldwide Church Directory)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across different regions.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유림목회자세미나연구원 원장)

사명을 일깨우신 배려

(요한복음 21장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제자들은 모두 흩어졌고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핏박한 종교지도자들이 가득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갈릴리로 도피했습니다. 요한은 갈릴리를 디베라라고 했는데 그 명칭은 로마황제 티베리우스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곳에는 7명의 사도들이 있었다면 2/3가 모여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스승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종교지도자들이 자신들도 체포하려 사람들을 보냈지

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두려운 상황에서 캄캄한 밤은 더욱 긴장감을 주고 시간도 정지된 듯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침묵을 깨고 말합니다.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고 하니 너도나도 따라나섰습니다. 때는 어둠이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제자들 대부분은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3년 전에 사용했던 배와 그물도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저들은 두려움을 이기려고 더욱 정신을 집중하여 그물질을 했을 것입니다. 어느 지역은 수심이 어둡고, 고기는 어떤 종류가 잡히는지에 대한 지식이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기쁨으로 배와 그물을 내던지고 주님을 쫓았던 제자들

입니다. 그런데 지금 3년 만에 두려움 때문에 처음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밤에는 전혀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 신기한 일입니다. 얼마라도 잡혀야 정상인데 말입니다. 고기가 잡히지 않을 때는 피곤이 상승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렇게 헛된 투망질을 하는 동안 동녘에서는 불그스름한 새벽빛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허탈한 심정으로 일을 끝내고 바닷가를 향해 노를 저었습니다. 그때 육지에 서신 어떤 분이 말을 걸어옵니다.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는데요.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그래서 밀려야 본전이다 싶은 심정으로 순종했더니 단번에 153마리라고 하는 대박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

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그랬겠지만, 수제자 베드로의 심정은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자상하신 주님께서 이미 조반을 준비하셨습니다. 육지에는 숯불이 있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신비한 요소가 있습니다. 숯불, 생선, 떡, 이것들은 어디서 준비하셨을까요? 이적을 통하여 준비하신 것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먼구서러워서 어깨를 축 느껴 트리고 찢찢때는 제자들을 보듬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든지 기적을 통해 제자들을 배불리 먹이실 수 있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얻은 수확물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떡을 서빙하시고, 구운 생선도 그리하

셨습니다. 친히 앉아서 서빙을 받아 마땅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조반을 마련하셨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떡을 건네주셨고, 구운 생선도 건네셨습니다. 자, 내가 조반을 준비했으나 너희가 알아서 먹으라. 하신대도 감사할 일인데, 칭찬받을 일을 하지 않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서빙하시는 모습은 아름답기만 합니다. 이후에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사명을 당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것은 다른 모든 제자들을 대표하신 것입니다. 사명을 당부하시는 주님의 자상하신 배려는 이 시대 배워야 할 참 스승의 상을 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책망보다, 사랑의 배려 때문에 모두가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습니. chiesadiroma@daum.net

푸/른/초/장

양춘길 목사
(필그림선교교회)



한 현인이 친구 몇을 다음 날 저녁 식사에 초장을 해 놓고 자신의 하인에게 장에 가서 제일 좋은 것을 사다가 음식 장만을 하도록 지시했다. 다음날 주인은 그 친구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다. 다섯 개의 코스로 음식이 나오는데 모두 다 혀로 요리한 것이었다. 참다못해 주인은 하인을 불러 다그쳤다. “자네, 내가 장에 가서 제일 좋은 것을 사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하인이 대답하기를, “주인님, 저는 말씀하신 대로 장에서 제일 좋은 것을 사 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허처럼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혀는 매우 사교적이고, 설득력이 있고, 친절하며 또 예배하는 일에도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주인은 이렇게 지시했다. “그렇다면 내일은 장에 가서 제일 나쁜 것을 사다가 음식을 준비하게!” 다음날 주인이 친구들과 다시 식탁에 둘러앉았다. 그런데 이번에도 몽땅 이런저런 모양의 혀로 된 음식만이 올라왔다. 다시 화가 난 주인은 하인을 꾸짖었다. “내가 이번에는 장에 가서 가장 나쁜 것을 가져다가 음식을 만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먼저, 진실을 말하는 입술이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12장 17절)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나 거저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 아니라.” (12장 19절) 거짓말을 하려면 이중기억력이 있어

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27) 그러나 진실을 말하는 입술을 가진 자는 마음에 자유함과 평안함이 있다. 다른 사람과 의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세상을 밝게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 미움이 아니

을 이야기하고, 협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남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는 격언이 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사람들에게 상처와 불화를 가져다주는 비난과 험담, gossip의 말들이 많이 돌아다닌다. 그것이 나에게까지 올 때 나에게서 멈추게 하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 어떤 미국 목사에게서 얻은 지혜를 소개한다. 그 목사는 어느 사람이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이런 이런 사람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까.”하고 이야기를 꺼내면 이렇게 대답한다고 한다. “잠깐만요, 나중에 당신에게서 듣는 이야기라고 해도 좋은 것입니까?

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끈고 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이사야 50:4) 셋째로, 지혜와 화평의 입술은 화평을 주도하는 말을 하는 입술이다. “악을 피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잠언 12:20) 화평케 하는 자(peacemaker)의 삶은 참으로 고귀한 것이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유명한 팔복에도 이와 같이 기록되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

자신을 위해서도 매우 지혜로운 일이 되는 것은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혜와 화평의 입술은 불평의 말을 삼가고 감사의 말을 하는 입술이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밝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한 번은 늘 불평을 잘 하는 남자가 일행 몇과 함께 지방으로 휴가를 떠났다. 하루는 저녁 늦게 어느 촌에 들어가 하룻밤 잘 곳을 찾아야 했다. 찾고 찾다가 겨우 한 허름한 여인숙을 찾았다. 그 여인숙에 들어서면서 불평 많은 남자가 여인숙 주인에게 물었다. “이 돼지우리 같은 곳에서 하룻밤 자는 데 얼마요?”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한 주인이, “한 마리 자는 데 이만 원, 두 마리 자는 데 마리당 만 오천 원이요”하고 대답했다. 손님들은 매우 기분이 상했지만 이미 밤이 늦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그 날 밤 돼지가 되어 그곳에서 잠을 잤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곳에 이렇게 잘 곳이 생겼으니 참 고맙소”하고 여인숙 주인에게 말을 건넸으면 얼마나 좋은 시작이 되었겠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작도 먼저 이미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특히 예수 안에서 얻게 된 구원과 영생에 대해 감사로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찾아오게 됨을 경험한다. 서로에게 불평의 말보다는 감사의 말을 먼저 건네는 가정, 원망보다는 고마움을 전하는 대화의 교회의 삶에 기쁨과 화평이 있게 마련이다.

“지혜와 화평의 입술”

잠언 12:17-20



그러자 하인이 이렇게 대답했다.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허처럼 나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혀는 모욕적이고, 중상을 입히는 것이고, 거짓된 것이니까요.” 결국 우리가 혀를, 즉 입술의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장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가장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전하고 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21) “이 것(혀)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데도. 내 형제들이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고보서 3:9-10)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하는 잠언의 말씀은 지혜와 화평의 입술(말)에 대한 귀한 교훈을 전하고 있다.

야 한다고 한다. 진리와 거짓을 다들 기억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계속 만들어 내게 되어 있다. 앞선 거짓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다. 그러기에 거짓말의 입술을 가진 자는 늘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거짓을 매우 엄하게 다스리신다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속된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새 하늘과 새 땅)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

라 기뻐하심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한다. (잠언 23:15-16) 둘째로, 지혜와 화평의 입술은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한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잠언 12:18) 격려와 칭찬, 사랑과 축복의 말은 다른 사람을 세워 주는 말이 된다. 그러나 비난과 험담은 남을 깎아내리며 상처를 주는 말이 된다.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상을 이야기하고, 평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건

(May I quote you?)” 그렇게 하면 보통은 긴 침묵이 흐른다. 그리고 난 후, 상대방이 “그것은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하고 응답하면, “그렇다면 제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며 중단시킨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과 축복의 말을 나누기에도 모자라는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입술은 비난과 험담을 멀리하고 격려와 사랑으로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하는 입술이다. 그러므로 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마태복음 5:9) 집을 건축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재료, 도구와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집을 허무는 것은 망치 하나면 된다. 말이 있듯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쉽게 다툼과 불화를 일으키는 것을 본다. 반대로 한번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공동체의 일치와 화목을 위해 혀를 삼가 조심해서 사용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공동체뿐 아니라 자기

지혜와 화평의 입술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된 말, 험담이 아니라 격려의 말, 인간이 아니라 화목의 말,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힘쓰는 입술임을 함께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자신의 입술을 지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야고보서 3:2)고 야고보 사도는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매일 드리며 참 지혜와 화평의 입술로 자라가기를 애써야 할 것이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시 141:3-4) pcyang@njpmc.org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세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절대로 통과되면 안될 차세대와 가정, 교회에 치명적인 3개의 발의안들!

새크라멘토에서 이번 발의안들이 통과하면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신앙,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꼭 저지하시고 널리 널리 알리시기 바랍니다.



STOP PROPOSITION 1! 절대 반대!!

태어난 갓난아기까지도 죽일 수 있는 발의안 AB2223의 통과가 지연되자, 새롭게 내놓은 Proposition 1.

발의안 제1은, 계빈 뉴שמ이 간절히 원한다고 발표한 "캘리포니아를 낙태천국"으로 만드는 것을 실현화 시키는 발의안입니다. 불필요한 정치적 목적의 발의안이며, 낙태를 제한 없이 허용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 캘리포니아주를 다른 주에서 온 수천, 어쩌면 수백만 명의 낙태를 원하는 사람들의 "성역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계빈 뉴שמ은 발표했습니다.

낙태 찬성론자인 Guttmacher Institute 연구소는 만일 Prop. 1이 통과될 경우, 캘리포니아 국내에서 낙태를 추구하는 다른 주 출신 인구가 3,000% 가까이 증가할 수 있으며, 많은 주들이 더 비싼 후기 낙태를 하러 올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연간 out-of-State 환자 수는 연간 46,000명에서 140만 명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이 발의안에 적힌 뜻(발의안 내용은 Tvnex.org에서 참조), 후기 낙태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발의안 1은 납세자들이 인플레이션과 하늘 높은 기금값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백만 달러의 세금을 고갈시키면서 이러한 수치를 훨씬 더 높일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입법부는 이

미 올해 낙태와 생식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2억 달러 이상을 약속했는데, 여기에는 다른 주에서 온 낙태 신청자들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수천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발의안 제1(Proposition 1)은 여성의 건강이나 선택권을 증진시키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이미 힘들게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납세자들의 세금을 높이고 대부분의 유권자들의 자유를 빼앗고, 후기 낙태에 대한 모든 제한을 없애는 비윤리적인 발의안입니다.

따라서, 발의안 1은,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라 낙태운동가들에게 정치적 점수를 얻기 위해 투표에 오른 냉소적인 정치적 표현이며, 결국 평소처럼 납세자들이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마리화나를 캘리포니아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며 통과시키고 난 지금의 모습보다 훨씬 더 악화된 캘리포니아를 만들 것입니다.

STOP PROP. 26! 독점 도박

그 어떤 기업과 비즈니스든, 작은 소기업과 비즈니스를 무너뜨리는 대기업 "독점"을 허용하는 것은 결국 시민들과 사회에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Prop. 26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합니다.

발의안 제26호를 추진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특수 이익 단체가 5개 있는데, 이 5개의 카지노는 PROP. 26(제안 26)을 추진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의 모든 게임의 독점을 보장받기 위해 민간 재판 변호사에게 법무 장관의 권한을 부여하여 경쟁사인 인가된 카드 룸을 말도 안되는 소송으로 문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의안 제26호는 대규모 확장으로 도박의 문을 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스폰서가 슬롯 머신의 현재 독점에 톨렛, 주사위 및 스포츠 도박에 대한 독점권 또한 추가할 수 있으며, 게임에 대한 독점을 확대하고 공정한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고 중요한 주 노동자 보호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Prop. 26은 한마디로 Monopoly (독점)를 통해 작은 비즈니스들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한번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다른 종류의 비즈니스에도 "독점"이 적용되어 또 비슷한 "독점" 법안들이 이어 나올 수 있기에, "독점"은 초기부터 반대해야 할 것입니다.

링크: Home - Vote NO on Prop 26

STOP PROP. 27! 미성년자를 온라인 도박으로 인도하는 발의안 절대 반대!!

Prop. 27을 추진하는 타주에 본거지를 둔 온라인 도박 회사는 Prop. 27은 노숙자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거짓 주장을 펼치면서 캘리포니아 전역에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합법화하자고 합니다. 이들은 모든 휴대 전화, 태블릿 및 컴퓨터를 도박 장치로 만들고 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도박 확장을 합법화로 만들고자 합니다.

하지만, National Council on Problem Gambling라는 도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위원회는 온라인 도박이 직접 하는 도박보다 중독성이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온라인 스포츠 도박은 다른 유형의 도박보다 도박 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5배나 더 높습니다. 온라인 및 모바일 잼블링은 빠른 속도로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도박장에 입장이 불가능한 어린 청소년들이 쉽게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Prop. 27 은...

미성년자 도박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보호 장치가 전혀 없으며, 어린이가 잘못된 정보나 성인 계정을 사용하여 온라인 베팅을 하는 것을 방지할 확실한 방법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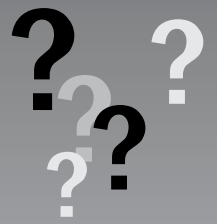
신용 카드로 온라인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중독과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쉽게 많은 부채를 지게 될 위험에 빠지게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5년 동안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0억 달러 이상을 지출 했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는데, 이 발의안은 캘리포니아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실제 투자를 하지 않고 이익의 90%를 타주 도박 회사로 보내지게 될 것입니다. 일반 기금을 명시적으로 회피한다. 세금 수입의 단 한 푼도 공립학교, 산불 예방 또는 비상 대응과 같은 주 우선 순위에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링크: Vote NO on 27, The Corporate Online Gambling Prop 더 자세한 내용은 tvnext.org 에서 보세요.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교회 집사입니다. 담임목사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도는 담임목사를 위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요? 알고 싶습니다.

- 토론크에서 Kim

A: 담임 목사의 위치는 참으로 중요한 위치입니다. 담임목사에 대해 교인들이 이런저런 말을 하기 쉬운데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많이 이해하고 기도해 주어야 할 대상입니다. 담임목사의 직능이 설교뿐 아니라 교회의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위치로서 보이는 지상교회의 실질적인 머리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머리(invisible head)는 예수님이십니다. 담임목사의 위치는 교인들이 존경하고 믿고 따르는 신뢰가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 계시록 2장을 보면 예수님은 오른손에 일곱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의 사자란 헬라어로 토양겔라라고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곱별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오른손에 붙잡았다는 것은 그만큼 소중히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께 관심을 가지고 소중히 여기시며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각이 이러하다면 교회의 지도자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시각도 달라져야 합니다.

"지도자를 사랑하고 지도자를 기도의 방패로 보호해 주자"

고 육한흠 목사님의 담임목사에 대한 글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제목은 "담임목사 그는 기도해 줘야 할 사람입니다."라는 글입니다. '담임목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바꾼 너무나 소중한 교회를 맡기셨다는 사실 때문에 자주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담임목사는 고독한 자리입니다. 그는 몇 사람의 목사가 아닙니다. 특정한 그룹의 목사가 아닙니다. 전 교회의 목사입니다. 원래 만민의 연인은 고독한 법입니다. 담임목사는 영적으로 대단히 예민한 자리입니다. 간교한 사탄이 어떻게 공격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담임목사는 하루에 몇 번씩 웃고 울어야 합니다. 어떤 성도들을 위해서는 정말 기뻐해 주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성도들을 위해서는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을 경험해야 합니다. 담임목사는 밤낮 쫓기는 자리입니다. 한 주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설교자로서 주일 말씀을 듣기 위해 원근 각처에서 달려오는 영혼들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담임목사는 신뢰를 못 받으면 죽는 자리입니다. 신뢰는 리더십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담임목사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가 살아야 우리 모두가 살고 그가 승리해야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위하여 중보적 기도를 해 주어야 합니다. 좋은 교회가 우리 모두의 행복을 보장하는 절대조건입니다. 그 절대조건을 좌우할 수 있는 막중한 자리에 있는 분이 담임목사입니다. 지도자를 통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지도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지도자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천사의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하는가? 지도자는 영적 최선봉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방패로 보호해 주지 않으면 영적 전쟁의 최선봉에서 마귀의 총알받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좋은 교회를 결정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도자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때 지도자를 통해 아름다운 교회 비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주최

제8회 신앙도서 독후감 모집

-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방법:** 추천도서 5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22년 10월 3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8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너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천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천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CHTV 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크리스천 저널(시카고, 미국).

후원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도서구입처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복음사 562-865-4949
 도르가 서점 714-636-7430



주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회장 이영선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사/모/단/상



송정임 사모

(버지니아 St. John's UMC)

“머리가 왜 그렇게 됐어?”

특히 고수하는 나만의 헤어스타일이 있지는 않지만, 보통의 아줌마 스타일이라고 하는 단발보다 약간 짧은 길이 컷에 굵은 펌으로 간단하고 손질하기 쉬운 스타일로 머리를 한다. 그리고 머리가 길어지면 외출할 때 헤어볼로 머리에 조금 더 킁을 주어 정돈한다. 아무래도 한국에 비해 비싼 미용비가 유행에 따른 다양한 헤어스타일보다 쉽고 간단한 스타일로 바꾸게 하는 것 같다. 이제는 다양한 미용재료와 필요한 도구들을 쉽게 구매 할 수 있어서 특별히 전문 미용기술 없이 가정에서 자신과 가족의 머리를

예쁘게 스타일링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안타깝게 그런 손재주가 너무 없는 나는 전문가의 손길이 늘 필요하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아무래도 바쁘고 시간내기가 더 힘들 것 같아 개학 전 주에 헤어샵에 가서 여름동안 길어진 머리를 자르고 펌도 했다. 늘 같은 스타일로 했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머리가 더 짧고 펌이 더 꼬불꼬불하게 너무 잘 돼서 내가 봐도 조금 웃길 정도로 한국에 흔한 할머니들의 스타일이 되었다. 조금 어색하긴 했지만 어차피 머리가 금세 자라서 크

게 마음에 두거나 신경 쓰지는 않았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니 가족들이 깜짝 놀란다. 특별히 딸은 '오~마이!!' 를 외치며 엄마 머리가 너무 이상하다고 하며 어떻게 하냐고...다시 머리를 하던지, 펌이 풀리고 머리가 자라는 당간간 헤어아이론으로 머리를 피우자 그 머리로는 밖에 나갈 수 없다고 한다. 가족들의 반응과 딸의 얘기를 듣고 괜찮다고 생각한 자신감이 없어지며, 머리가 안정 될 때까지 귀찮지만 시간을 들여야겠다고 생각했다. 주일에 헤어아이론으로 머리를 피고 교회에 가니 몇몇 성도님들이 헤어스

타일이 바뀌었다고 하시며 잘 어울린다고 얘기 해 주셨다. 개학날 아침, 오랜만에 만나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또 이번엔 처음 오는 아이들을 만나는데 즐겁고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 전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많은 시간을 들여 머리를 예쁘고 단정하게 헤어아이론으로 펌이 아닌 생머리 단발 스타일로 다시 정돈했다. 역시 개학 첫날은 여기저기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며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방학동안 보지 못한 친구들과 재밌게 놀지만 또 싸우기도 하는 아이들의 소란으로 너무나 분주하고 바빠

다. 그렇게 왔다 갔다 정신없던 오전 수업 시간이 지나고 점심 시간이 되어 식사 전 아이들과 손을 씻으러 줄을 맞추어 가는 데, 처음 프리스쿨에 와서 아침에 계속 울며 엄마를 찾아 본인도 선생님들도 힘들게 했던 로빈이가 나를 보더니, 귀엽고 커다란 눈을 더욱 동그랗게 뜨고 "머리가 왜 그렇게 됐어?" 한다. "응?" 출근 후에는 거울 볼 시간이 없던 나는 머리에 뭐가 묻었거나 미용수업 시간에 사용한 색종이 조각이 붙었나? 생각하고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니, 아침에 곱게 피고 나온 내 머리가 다시 <브로콜리>가 되어있었다. '오~ 마이!!!' 이번엔 정말 내 입에서 이 말이 저절로 나왔다. 그리고 웃음도 나왔다. 옆에서 손을 씻던 아이에게 "왜요? 로빈아, 선생님 머리가 이상해요?" 하고 물으니, 아주 무심하게 "아니, 아침과 달라." 하고 대답한다. 그러면서 "예뻐!" 하고 한 마디 더 붙인다. 본인들도 영어가 편하고 한국어가 서툴지만 가정에서 아이들과 한 국어를 사용하고, 프리스쿨에 보내는 이민 2세 부모님 가정에서 아직 높임말(경어)을 배우지 못한 아이는 계속 낮춤말로 대답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사

랑스럽고 대견한 마음이 든다. 그리고 자신도 낮은 환경과 익숙하지 않은 언어에 울며 정신 없던 중에 선생님 머리가 맘에 쏠려 다시 원래 꼬불꼬불 돌아와 아침과 달라진 것을 얘기하는 아이의 모습에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일을 계속 하는 기쁨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나이가 들수록 나의 원래 모습 보다는 다른 사람의 평가와 잣대에 신경 쓰고 눈치를 보며 적절히 타협도 하고 맞춰가며 그것이 사회에서 성숙한 어른의 삶이라 생각하며 살아간다. 심지어 교회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너무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조차 진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은지... 순수한 아이의 말 한마디가 많은 생각을 듣게 했다. 그리고 나의 아침은 예전으로 돌아왔다. 딸에게 빌린 헤어아이론도 돌려주었다. "엄마, 이게 계속 필요한 거 아니예요?" 하는 아이의 방문을 단으며 대답한다. "괜찮아" "로빈이가 예쁘네." songjeongim@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러시아발’ 유럽 전력난에 에펠탑 조명도 일찍 꺼진다

프랑스 파리시청이 러시아발 에너지난으로 인해 에펠탑의 조명을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끄기로 했다고 지난 1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조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치솟은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에펠탑의 조명은 평소와 같은 오전 1시가 아니라 오후 11시 45분에 꺼진다. 그동안 에펠탑은 해가 지면 정시마다 2단계의 전구로 반짝이는 조명을 선보였는데, 자정 이후에는 이 쇼를 볼 수 없게 된다.

에펠탑의 야간 조명은 에펠탑 연간 에너지 소비량의 4%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펠탑 운영 책임자 장 프랑수아 마르탱스 사장은 “이번 조치는 에너지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반영한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은 대금 지불 문제를 이유로 이번 달부터 프랑스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프랑스는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에 비해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는 낮은 편이지만,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는 이번 겨울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최악의 경우 에너지 배급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파리뿐만 아니라 마르세유를 포함한 프랑스의 다른 시 당국들도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관공 명소의 야간 조명을 줄일 계획이다.

앞서 독일 베를린도 올여름 카이저 빌헬름 기념 교회와 유대인 박물관, 전승 기념탑 등 시내 주요 명소의 야간 조명 시간을 단축했다.

우크라이나 요충지 탈환에 러 ‘중전’ 거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뺏긴 지역을 속속 탈환하면서 전세를 뒤집고 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침공당한 지 200일째를 맞은 우크라이나군은 북동부 하르키우와 동부 이지움 등까지 진격해 자국 영토 상당 부분을 되찾고 러시아 국경에서 50km 떨어진 지역까지 나아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발레리 잘루즈니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우리군이 이달 들어 영토 약 3000km를 수복하고(러시아) 국경 근처까지 접근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군은 특히 동부 돈바스 지역과 가까운 내륙 도시이자 러시아군이 군수 보급에 활용해온 이지움을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하르키우시에서 북쪽으로 약 19km 떨어져 있으며 러시아 국경 바로 옆의 휴프우카 시내에 우크라이나 부대가 진입한 모습이 담긴 동영상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군 반격에 따라 러시아군이 하르키우와 이지움 등지에서 잇따라 퇴각했다는 소식도 잇따르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전날 “방어 진지 강화를 위해 군을 ‘재편성’한다”고 선전하며 철수했다. 러시아군은 도네츠크 주로 재배치됐으며 주민들을 러시아로 대피시키고 있다. 영국 국방부는 12일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가 강 서쪽의 하르키우주 점령지역 전체에서 철군령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러시아 장병들의 군 수뇌부에 대한 신뢰는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러시아군은 퇴각하면서 발전소와 민간 시설 등을 폭격했다. 러시아군은 하르키우에 무차별 미사일 공격을 단행해 도시 서쪽 외곽에 있던 발전소가 파괴됐다. 이는 화재로 이어져 최소 한 명이 숨지고 인근 지역에서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났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민간인과 민간 시설에 대한 고의적이고 악랄한 테러 행위”라며 “러시아 테러범들은 군사시설이 전혀 없는 발전소까지 파괴해 조명과 난방을 없애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전쟁 200일 기념 연설에서 “200일간 러시아군 탱크 2000대, 장갑 전투차량 4500대, 포대 1000문, 항공기 250대, 헬기 200대, 드론 1000대, 함정 15척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전세가 달라지자 러시아 측에서 협상 관련 언급이 나왔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러시아 국영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협상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협상을 오래 끌수록 합의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은 믿을 수 없다”며 협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전날 수도 키이우에서 열린 알타 유럽 전략 회의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점령 사실을 인정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이는 실질적인 대화가 없을 것”이란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인한 방산수출 위험이 제기된 자포리자 원전의 가동을 전면 중지했다. 국영 원전 운영사 에네르고아톰은 “자포리자 원전이 보유한 6기 원자로 중 남은 한기의 전력망 연결을 차단했다”며 “안전히 멈춰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푸틴 대통령은 예마

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자포리자 원전 시설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주기적인 공격은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찰스 3세 국왕 ‘평생 헌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서거에 따라 영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왕위 계승 1순위였던 찰스 왕세자가 국왕으로 즉위했다. 70년에 가까운 훈련을 통해 찰스 3세는 ‘가장 준비된 국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예민한 성격 탓에 그가 영국 국민의 마음에 파고들 수 있을지 의문도 적지 않다.



11일(현지시간) BBC, 가디언 등에 따르면 그는 평소 검소한 생활을 하고 왕실 업무를 열정적으로 처리하는 인물로 전해졌다. 왕실 공보관을 지낸 줄리언 페인은 “많은 왕실 인사들과는 달리 찰스 3세는 사치스러운 생활과 거리를 뒀다”고 말했다. 찰스 3세의 아내인 카밀라 왕비는 “그는 모든 일이 미리미리 끝나 있기를 바란다. 이게 그가 일하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찰스 3세의 지나친 열정이 독이 된 적도 있었다. 찰스 3세는 2004~2005년 농업, 유전자 변형, 지구온난화, 사회적 소외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는 편지를 정부 각료와 의원들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져 ‘간섭하는 왕자’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왕실에 대한 상징성만 있는 그가 정치적 주장을 펼치자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온 것이다. 당시 찰스 3세는 “만약 이것이 간섭이라면 나는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페인은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무엇인가 하고) 비난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그가 국왕이 되면서 이전과 같은 정치적 주장은 자제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그는 2018년 BBC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며 “군주가 되는 것과 의견 표명은 구분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찰스 3세가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영국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는 다소 수줍음이 많고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예민한 영혼’이라는 평가가 많다. 그는 10일 제임스쿱에서 열린 즉위식에서 책상에 놓인 만년필 통을 짜증 섞인 표정과 제스처로 치우라고 지시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는 버킹엄궁에서 첫 연설을 통해 애민정신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왕이 확고한 헌신으로 그랬던 것처럼, 저 또한 우리나라의 중심에 있는 헌법 원칙을 수호할 것을 약속히 서약한다”며 “여러분이 영국이나 영연방, 전 세계 영토 어디에 살든 그리고 배경이나 신분이 어떻든지 간에, 저는 여러분을 충실함과 존경,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시위 호건 “美 행정부에 전기차 문제 해결 촉구”

래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제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지급 차별 문제 해결을 미 행정부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물량 제한(쿼터)이 한국 기업에 불공정하다는 뜻도 재차 언급했다.



호건 주지사는 지난 9일(현지시간) 특파원과 인터뷰에서 “한국인들은 혁신적이며, 첨단전자와 바이오 등 여러 분야에서 탁월하고,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며 “한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과 메릴랜드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자 무역 파트너”라고 말했다.

호건 주지사는 IRA와 관련해 “우리는 메릴랜드에서 더 많은 전기차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추진해 왔다. 이 분야는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또 다른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지사로서 워싱턴(연방의회)의 결정과 관련이 없지만, (한국 측) 친구들의 요청을 받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부와 연락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호건 주지사는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물량 쿼터제에 대해서도 “공정하지 않다. 우리는 한국산 철강이 정말 필요하다”며 “한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장벽이고, 쿼터를 없애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건 주지사는 “한국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 그들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며 “(방한기간) 워싱턴 행정부에 더욱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건 주지사는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 방한 때 이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호건 주지사는 지난 4월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과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쿼터제 완화를 촉구했다.

호건 주지사는 인터뷰 시작 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한국으로부터 진단키트 50만 회분을 받은 사연을 소개하는 등 한국에 대한 차별한 애정을 강조했다. 그는 “내 내내는 미국 역사상 첫 한국계(주정부) 퍼스트레이디이고,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 사위”라며 이런 관계를 기반으로 한국에 연락해 검사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팬데믹 기간 정말 필요할 때 우리 주의 영웅이 돼준 한국 국민과 랩지노믹스에 감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호건 주지사는 인터뷰 자리에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받은 대통령 시계를 착용하고 나오기도 했다.

호건 주지사는 방한 기간 윤석열 대통령 예방 일정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시간을 내주셔서 매우 영광이다. 한국 정부와 기업계가 많은 관심을 갖고 환영해주 흥분된다”고 말했다.

호건 주지사는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 방한 기간 그는 메릴랜드 투자를 위한 주한 무역사무소 개설을 발표한다.

선교 안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54. 이내수 (1872-1923)

이내수는 1872년에 전라북도 전주에서 태어나 장수로 이동했다.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되고 수년째 계속된 흉년으로 허덕이던 1904년 2월에 그는 청운의 꿈을 품고 인천을 거쳐 일본 고베에서 도리코에 승선하여 두 주 뒤 하와이 호항에 도착했다. 그런데 일본 공사가 선박 회사와 부동하여 한인들의 여권을 주지 않아 하와이 이민국에서 사무를 보던 류약류와 송헌주가 답판하여 여권을 찾아 각 농주에 전하였는데 미처 전하지 못한 이내수 등 15명의 여권을 공립신보사에 맡겼다. 그래서 이내수는 광고비와 유포비 조로 20센트를 내고 여권을 찾았다.

일본의 야비한 행동을 체험한 이내수는 1906년 12월에 하와이 호항에서 동포가 자치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며, 생활을 개선하고, 전통문화를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민찬호, 임준호, 임정수와 함께 동포 자치 계몽 단체인 공진회를 조직하였다.

이듬해인 1907년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하와이 선교부 제2차 연회가 호놀룰루에서 모였다. 그해 감독은 얼 크랜스톤 박사였고, 감리사는 존 W. 와드만이었다. 한국교회 총무로 현 과과 선교부 보조요원으로 이직성이 있었고, 2년차 목사 수련생으로 민찬호, 윤병구, 이경직, 홍치범, 김유순, 1년차 목사 수련생으로 신판석, 최진태, 김이제, 김유순이 있었다. 와드만 감리사는 그해 하와이 선교부 연회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지난 1년간 시간과 공간이 부족하여 하와이에 입국한 5,6천 명의 한국인 노동자를 완전히 전도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들 중 절반 이상이 세례교인이나 학습교인 또는 원입교인으로 교회에 등록했으며, 25개의 기도처를 조직했고 12명의 전도인과 6명의 교사와 많은 권사와 속회 인도자를 두어 자원하여 봉사토록 했다. 이런 가운데 하와이 선교부는 일본인교회보에 이어 포화한인교회 (Hawaiian Korean Advocate)를 발행했다. 포화한인교회보에 한인교 관련된 기관으로는 한국 매일학교가 있었는데 와드만 감독의 부인이 교장을 역임했다.

위의 하와이 선교부 연회는 이내수를 포화한인교회보의 발행인으로 파송했고, 부편집인으로 민찬호를 연임시켰다. 민찬호는 1906년에 포화한인교회보 발행인이자 부편집인으로 재직했다. 1904년에 흥승하가 등사판으로 발간한 포화한인교회보는 도쿄에 있는 감리교 출판사에서 타입을 만들었는데 앞표지에 반도 왕국 대한 제국이 새롭게 문명화되는 의미로 솟아나는 태양 그림을 넣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교차한 가운데



1907년 포화한인교회보의 발행인으로 파송 ... 포화한인교회보 성공적으로 운영 출판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소망

태극기는 명암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에서 구출을 보여 인상적이었다. 포화한인교회보는 편집인 사실, 교회 뉴스, 선교 요지, 편지, 한국 소식, 주일학교 학습지 등을 실었다. 매월 500부를 인쇄하여 하와이 각 섬에 배포했고, 널리 알려져 더 많이 인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한국에서 사용하는 타입을 수입하고자 했다.

이듬해인 1907년 8월에 이내수는 호항에서 우체함 669호를 마련하고 청루이층집을 빌려 해동여관을 설치했다. 한국이나 미국으로 가는 동포에게 선표를 주선하고 매사를 편리하게 도움을 주었는데 상등은 1 주야에 55센트였고, 중등은 1 주야에 45센트라며 다음 달에 포화한인교회보에 광고를 냈다.

그해 9월에 하와이에 있던 24개 한인단체 대표 30명이 호항에 모여 조국의 국권 광복을 후원하고 재류 동포의 안건을 보장하며 교육사업을 중시한다는 목적으로 한인합성회가 결성되었고, 총회장에 임정수와 정명원, 부회장에

안원규와 함께 이내수가 선임되었다. 그들은 하와이의 47개 지방에 지회를 설치하여 1,051명의 회원을 확보했으며, 회비(예납금)는 매년 2달러 25센트였다. 그달 말에 청년회 통상회가 모였다. 회기에 따라 새 임원을 선정하였는데 이내수는 인제국에 선임되었다. 그해 새 임원은 회장에 임정수, 전도국에 임전호, 학무국에 김성권, 교제국에 김덕성, 통신국에 한재명, 회계국에 이지성이었다.

1908년 1월에 하와이 선교부 제3차 연회가 호놀룰루에서 모였을 때 지난 1년간 포화한인교회보는 성공적으로 운영됐음을 알게 된다. 민찬호와 함께 이내수에 한국인들은 크게 관심하고 동정했으며, 달마다 구독자가 증가하였고, 지난 연회 이후 9월까지 500부를 인쇄했고, 9월 이후 600부를 인쇄하고 있었으며, 연회 직전 주간에는 민찬호가 구독자 모집 여행을 하여 새로운 구독자를 많이 찾았으므로 더 많은 수요에 더 많은 부수를 인쇄하게 되었다. 때때로 구독자들은 잡지 대금을 기쁘게 지급했다. 지난 한 해 포화한인교회보는 편집인 사실, 다양한 대화 글, 국제 주일학교 매달 교재, 교회 소식, 한국과 하와이 소식 등을 실었다. 이 출판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소망했다.

1908년 하와이 선교부 연회는 이내수를 한 해 더 포화한인교회보 발행인으로 파송했다. 그해 감독은 데이비드 H. 무어 박사였고, 와드만 감독은 연임됐

잡 분경으로 일반 동포의 걸림돌이 되어 심지어 농주에게 견죽을 당한 일이 있었다. 예를 들면 티켓(일한 날자를 증거하는 서류)을 작간하여 장부를 현란하게 하고, 밖에서 일하다가 심장의 지휘를 방해하거나 동포끼리 질투하고, 심장의 눈치만 살피다가 짬을 타서 외딴곳에 가서 잠을 자거나, 밖에서 대양 시간을 허비하여 남의 중한 금전을 공짜로 먹으려고 게으르게 굴다가 권고하여도 듣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자는 불과 몇 사람이 되지 아니한데 일어탁수가 되어 그달 30일에 호항에 있는 수백명 한인 동포가 티켓을 얻으려고 정거장에 갔다가 일체 퇴각하였다. 그래서 민찬호와 함께 이내수가 가서 간신히 교섭하여 만일 폐해가 있으면 한인 단체인 국민회 포화 총회장이 이내수가 담당하기로 하고 지방 농주의 허락을 얻어 한인 동포를 취업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폐해를 끼친 사람에게 캠프보시(동물 주판)를 하도록 하여 한인 동포의 노동 생업을 온전히 보호하기로 하였다.

그달에 마위도 지방회원이었다가 그개월 전 한국으로 돌아간 원우현의 청원에 따라 국민회 포화 총회장이었던 이내수는 황해도 용진군 기독교 광선학교 임시공동회를 설립하도록 허락했다. 그해 10월에는 하와이에서 60여 곳에 국민회 지방회를 설립하고 총회장 이내수는 각 도를 순행하여 동포의 고초를 위로하고 애국 사상을 고취하여 국민회가 발전할 희망이 컸다.

1909년 3월에 호항에서 미국 북감리

한층 끌어올렸다. 서면 보고한 민찬호는 한인의 학교 사역과 교회 사역에 진지하게 참여한 와드만 감리사에 대해 매우 감사하면서 포화한인교회보에 대한 신심 어린 그의 관심에도 크게 감사하면서 포화한인교회보가 한인을 위하여 가장 좋은 기독교 잡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고, 이러한 중요한 문서 사역이 계속되도록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 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내수는 1908년 하와이 선교부 연회 이후 포화한인교회보 발행인직을 사임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이내수는 약 2년간 포화한인교회보에서 사역하였다.

포화한인교회보를 떠난 이내수는 나라 사랑에 크게 힘썼다. 1910년 2월에 대동보국회와 국민회가 통합되어 대한인국민회가 탄생했다. 그해 12월에 인삼각의 사진만 보고 편지를 교환을 약속하고 하와이로 온 최초 사진 신부인 목포 출생의 최사라와 이내수는 민찬호의 주례로 결혼했다. 당시 그는 코인 가구회사에서 매트리스 가구공으로 활동하였다.

1918년 3월에 갈리히 지방에서 하와이의 각 지방 대표가 회동하여 오아후 임시연합회를 고쳐 국민회 포화 임시연합 중앙회를 조직하고 임원을 선정하였다. 이내수는 법무원에 선임되었다. 이날 제1조와 총회장 안현경 탄핵안은 재정상 과실을 들어 총회장 안현경의 행정을 거절할 것을 선언하였고, 하와이 시국에 대한 선후 방침을 결정하였으며,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때에 총선거를 다시 행할 예정이었다. 이런 가운데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가 하와이 특별 위원부를 파송하였고, 위원부 부장이었던 이내수가 1920년 4월에 신한민보에 '중앙총회 공고'라는 제하의 6줄 기사를 통해 대한인 국민회 중앙 총회장 윤병구에게 본 위원부가 총회장의 지시에 따라 그동안 폐쇄하였던 총회관문을 열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내수는 다년간 속명으로 신음하다가 불행히 1923년 6월 14일에 사망하는 아내와 자녀 4명을 이 세상에 두고 향년 52세에 장사하여 이른바 후한 인간교회에서 장례예배가 있고 나서 누아누아 공원묘지에 안장되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나는 한국 국민의 일 부분이 되어 광복 사업의 성공함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됨이 실로 죄인이다'라고 했다. 그달 17일에 신홍균의 사회로 추도회가 있었다. 김진호는 이내수의 역사를 진술하고, 권도인, 정원명 등이 소개한 추도사로 그의 총애와 약력을 간곡히 추다하였다.

amien,sohn@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예배: 오전 10:30 평일 예배: 오전 10:45 수요일 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 461-2810 (Fax: 경음), (917) 73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양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준성 주일예배: 오후 2시 수요일예배: 오후 8시 Tel: (718) 662-6611 147-01 38th Ave. Flushing NY 11354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토) www.cpcny.org, Tel: (516) 387-9940, 9942 (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욕주산양교회 담임목사: 김희복 주일예배: 오후 1:30 다문화예배: 오후 4: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구역모임 Tel: (646) 270-9037 kimheebok7@gmail.com 76-11 Woodside Ave. Elmhurst, NY 11373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 3, 5주) Tel: (201) 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베이스айд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장년예배: 부 오전 7:30 3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수요일예배: 오후 6:00 새벽기도: 오전 5:45 새 목회: 오전 5:45 신구복합대학예배: 매주목요일 오전 5:30 Tel: (718) 229-286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st St. Bayside, NY 11361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후 1:45분 주일 3부 오후 1:50분 찬양예배: 오후 3: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10:30분 Tel: (347) 513-1351, cheongsoonwong@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사랑의동산교회 담임목사: 강신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1:00 주일3부예배: 오후 2: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 Tel: (516) 433-0662 8 Duffy Ave., Hicksville, NY 11801	새벽별주님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토) Tel: (917) 733-7387, sbchurch2021@gmail.com 46-08 161 St Flushing, NY 11358	은누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문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Tel: (845) 359-1458, http://ornurechurch.com 10 Oak St., Orangeburg, NY 10962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2: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 886-4040, www.kapcc.org 147-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nc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선군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h3>					

말씀과 땅 (17) - "이스마엘의 족보"

박성현 박사

(고든콘웰신대학원 구약학교수)



2. 실제 역사

족보의 또 다른 유익은 이를 통해 우리가 실제 역사를 배운다는 점이다. 비록 간추린 이름에 불과하지만 그 족보는 하나님이 행하신 실제 역사의 한 면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스마엘의 열 두 족속의 경우 최소한 여섯에 대한 역사 자료가 존재한다:

느바웃. 후대 앗수르 문헌에 '나바야티,' 기념 명각(graftiti)에 '나바얏'이란 이름으로 등장하며 에돔 동편에 정착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사야는 이들을 양치는 족속으로 묘사했다(사 60:7).

두마. 후대 앗수르 문헌에 '아두마투'로 표기된다. 앗수르 왕 산헤립의 기록에서 이들이 차지한 지역을 "아랍인의 요새" 그 왕을 "아랍인의 왕"이라 할 만큼 이들이 차지한 지역은 북 아라비아의 요지였고, 주 무역로가 그리로 지나

함께 앗수르를 맞서 싸웠던 내용 또한 남아 있다. 잠언 30장에 아굴의 "잠언"(1절), 그리고 31장에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1절)이라 할 때 "잠언"으로 번역한 단어는 사실 '맛사'다. 여기서 '맛사'를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고유명사로 읽는다면 아굴과 르무엘은 둘 다 맛사 족속의 왕이 된다.

데마. 고대의 오아시스였던 데마가 그 영토였던 것으로 보인다. 중심 무역로에 자리한 요지로 읍기 21장 19절에 언급된다. 맛사와 마찬가지로 디글랏 빌레셀 3세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이사야는 데마가 오히려 그 침공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난민을 위해 물과 떡을 나눠줘야 할 것을 말했다(사 21:14). 후에(주전 552년) 나보니두스(Nabonidus)는 데마를 바벨론의 수도로 정하고 그의 통치 기간 12년 가운데 10년을 데마에서 보냈다.

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창 25:18)고 말할 수 있다.

이때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로 번역한 표현이 창세기 16장 12절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한글개역개정에는 거기에 이렇게 옮긴다: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어떻게 같은 표현을 한 곳에서는 "맞은편에"로, 다른 곳에서는 "대항해서"로 옮기게 되었을까? 혹, 번역에도 편견이 작용할까? '이스마엘' 하면 왠지 거북하고, "대항해서" 사는 것이 맞게 보이는 편견이 혹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을까?

그러나 '이스마엘'은 참으로 복된 이름이다. '이스라엘'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마엘'이란 이름을 주셨다. 하나님이 친히 지어 주신 이름이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엘'을 담은 이름. 이런 패턴의 이름이 후대 이스라엘 역사에 많이 등장하는데 그 첫 모델이 이스마엘이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구약의 족보는 종종 읽는 이로 하여금 디모데후서 3장 16-17절 말씀과 어떻게 연결지어야 할지 궁금하게 만든다 - "모든 성경은... 유익하나..."

창세기 25장에 등장하는 이스마엘의 족보의 경우 특히 그렇다: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웃이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브엘과 밍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맛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니"(창25:13-15절).

아무런 설명 없이 그저 열 두 아들의 이름만 열거한 것이다.

본 글에서 필자는 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유익"이 있을 지에 대해 잠시 살펴보려고 한다.

1. 약속의 성취

이스마엘의 족보가 주는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은 사래의 몸종으로서 아브람의 아이

성 품 칼럼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마태복음 7:17)

열매 맺는 삶의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그분의 성품으로 세상을 아름답고 장엄하게 창조하신 후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세기 1:28)

이렇듯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세계가 다 주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아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그분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열매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사 3:17).

열매 맺는 삶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한복음 10:10)라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온 관심은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지요.

신학자 존 머레이(John Murray)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비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든, 올바른 성품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것이다. 성품이 운명을 결정한다"

인생의 진정한 열매는 눈에 보이는 가치나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성품이야말로 평생 우리가 공들여 가꿔야 할 삶의 열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빛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곧 성품으로 나타나지요(에베소서 5:9).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따라 사는 순간순간이 우리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을 본받도록 이끕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에베소서 5:10-11)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입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 경청하고 긍정적 태도로 기뻐하며 감사하고 순종하는 것, 인내하고 책임감과 절제, 창의성과 지혜로 맺는 좋은 성품의 열매가 오늘도 주를 기쁘시게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좋은 성품의 인생이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goodtreeusa@gmail.com

"방대한 내용을 간추린 내용으로 만든 족보는 성경 독자를 위한 성령의 배려"

를 가진 후 사래의 학대에 못 이겨 도망하던 중 여호와와 사자가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창 16:10)는 말씀을 따라 여주인에게 돌아가 낳은 아이가 바로 이스마엘이었다. 세월이 흘러 이스마엘에게서 열 두 족속이 나오기에 이르고, 창세기의 저자는 그 이스마엘의 족보를 창세기 25장 12-15절에 담아 기록하는데, 이 일곱줄 밖에 되지 않는 짧막한 부분을 들어 창세기 전체를 구성하는 열 개의 '플레트'(역사, 족보, 대략...) 가운데 하나로 삼았다. 그만큼 짧지만 비중이 있는 대목인 것이다.

한 조상에서 비롯된 열 두 족속, 과연 하나님은 하갈에게하신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셨다. 족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약속의 씨인 이삭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이스마엘을 비롯한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들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된다.

갔다.

게달. 북 아라비아에서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족속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이사야는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를 언급한다(사 21:17). 예레미야에서 게달은 "동방 자손들"(렘 49:28)로 일컬어지며(아마도 이들 중 동방 박사가 나왔을 것이다), 에스겔서에서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겔 27:21)이라 한 표현은 게달이 당시 아랍연맹을 이끄는 위치에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헌에서 발견되는 앗수르와 게달 사이에 있었던 지속적인 충돌은 앗수르가 이런 게달을 계속 견제했기 때문일 것이다.

앗브엘. 후대 앗수르 문헌에 '이디바일루'로 등장한다. 앗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3세(주전 744-727)에 의해 정복되어 앗수르와 애굽 사이의 경계를 이루었다. "서쪽"이라 불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시나이(Sinai) 반도 서쪽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맛사. 앗수르 문헌에 "맛사인들이 디글랏 빌레셀 3세에게 조공을 바쳤다"는 기록이 있고, 느바웃과

그의 여섯 족속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여들'은 신약 시대에 '이두레'(눅 3:1)로 불리진 것으로 보이며, '밍삼'과 '미스마'는 이스라엘의 시므온 지파로 흡수된 것으로 보인다(대상 4:24-27).

이상의 자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마엘 족속을 대동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역사를 최소한 이스라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 지속시켜 주셨음을 보여주는데, 이런 방대한 내용을 족보라는 간추린 정보로 받게 하신 것은 우리 성경 독자를 위한 성령의 배려가 아닐까 싶다.

3. 시각의 교정

앞에서 살폈듯이 성경의 이스마엘은 이스라엘과 역사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대부분 유지했다. 심지어 그들에게서 잠언이 나오고, 그들의 일부가 시므온 지파로 영입되며, 그들에게서 동방박사가 나왔을 가능성마저 있다. 그런 그들이 차지하고 산 땅을 포괄적으로 서술하면, "하월라에서부터 앗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

- 얼마나 귀한 이름인가! 사실이 이름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새 이름이 주어지기도 전이다. 더군다나 그 아이가 출생하기도 전에 그 어머니에게 고지하신 이름이다.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창 16:11).

이렇게 출생 이전에 이름이 고지되는 경우 유대 랍비 전통에서는 이를 '의인'의 출생으로 본다. 다시 말해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선대하시고 랍비들이 '의인'으로 본 아브람의 아들이다. 그런 이스마엘을 회교도들의 조상으로 삼은 것은 후대의 일이다.

이스마엘. 그는 하나님이 귀 기울이신 하갈이 낳은 아들이었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심으로 아라비아에 정착해 큰 민족을 이루기에 이른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다.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로 아는 것. 그렇게 우리 시각의 교정이 일어난다면 이 역시 성경의 족보가 주는 유익일 것이다.

spark4@gordonconwell.edu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h4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ed;">갈보라성로교회</h4> <div style="text-align: center;"> <p>담임목사: 조웅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 style="font-size: 0.8em;">Tel: (702) 579-7576, Fax: (702) 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div>	<h4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ed;">다민족교회</h4> <div style="text-align: center;"> <p>담임목사: 홍귀표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그림교제/기도회: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일영양부/기도회: 오후 8:00 다민족찬양대: 매주(목) 오후 4:00-7:00</p> <p style="font-size: 0.8em;">Tel: (773) 8021112, estross@yahoo.com 685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p> </div>	<h4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ed;">몽고메리교회</h4> <div style="text-align: center;"> <p>담임목사: 최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양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 style="font-size: 0.8em;">Tel: (610) 222-0691, 267-471-7777, Fax: (610) 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346</p> </div>	<h4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ed;">벅스카운티장로교회</h4> <div style="text-align: center;"> <p>담임목사: 김인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베: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p> <p style="font-size: 0.8em;">Tel: (215) 945-1512, Fax: (215) 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p> </div>	<h4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ed;">벨렐교회</h4> <div style="text-align: center;"> <p>담임목사: 백성중 주일 1부예배: (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 (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장영) 오후 1:45 디베: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 style="font-size: 0.8em;">Tel: (410) 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kton City, MD 21042</p> </div>	<h4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ed;">보스턴장로교회</h4> <div style="text-align: center;"> <p>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토요일예배: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유익, 유년, 종교대학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p> <p style="font-size: 0.8em;">Tel: (508) 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ingham, MA 01748</p> </div>
<h4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ed;">새생명한인교회</h4> <div style="text-align: center;"> <p>담임목사: 정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E M 베: 오후 6:00(화/목/토)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구역 예배: 각 구역별로 한국 학교: 오전 10:20(주일)</p> <p style="font-size: 0.8em;">Tel: (850) 423-9700, Cell: (213) 703-9961 5502 Old Bethel Rd., Crestview, FL 32536</p> </div>	<h4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ed;">안디옥교회</h4> <div style="text-align: center;"> <p>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p> <p style="font-size: 0.8em;">Tel: (702) 749-9929, www.om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p> </div>	<h4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ed;">일킨사제자들과교회</h4> <div style="text-align: center;"> <p>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 style="font-size: 0.8em;">Tel: (501) 820-9049, www.jje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p> </div>	<h4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ed;">앵커리지열린문교회</h4> <div style="text-align: center;"> <p>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p> <p style="font-size: 0.8em;">Tel: (907) 344-6446, Fax: (907) 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div>	<h4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ed;">영생장로교회</h4> <div style="text-align: center;"> <p>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 style="font-size: 0.8em;">Tel: (215) 542-0288, Fax: (215) 542-9037 706 Wilmer Rd., Hosham, PA 19044</p> </div>	<h4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ed;">킬린은누리교회</h4> <div style="text-align: center;"> <p>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주일 3부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p> <p style="font-size: 0.8em;">Tel: (254) 535-1842(H), (254) 501-4933(C) 1000 E. Veale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div>
<h4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ed;">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h4> <div style="text-align: center;"> <p>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 style="font-size: 0.8em;">Tel: (703) 841-4447, www.mpcoc.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div>	<h4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ed;">타코마 한인장로교회</h4> <div style="text-align: center;"> <p>담임목사: 박성효 주일 영아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예배: 오후 1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p> <p style="font-size: 0.8em;">Tel: (253) 535-6675, www.tbcomacc.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p> </div>	<h4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ed;">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4> <p>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0.8em;">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h4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ed;">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4> <p>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0.8em;">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h4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ed;">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4> <p>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0.8em;">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h4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ed;">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4> <p>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0.8em;">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목회서신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로 만...

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했습니다. 시 50:15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고 했습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그 하나님은 지금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제가 대구 평강교회에서 목회할 때, 복원옥 집사라는 30대의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온몸에 암이 퍼져 가야 기독교병원에선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이미 장례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병이 중해 이젠 손가락을 들 힘조차 없었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새벽 제단에 나갔습니다. 온 교회가 40일 작정 새벽기도를 시작했는데 어느 날 저의 설교 중에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사가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당신은 죽...

고 살지 못한다. 네 집에 유언하라"했지만, 히스기야는 벽을 보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죽을병을 고쳐주시고 수환을 15년 연장시켰다는 설교를 듣는 순간 복원옥 집사는 그 말씀을 붙잡고 히스기야처럼 울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히스기야를 고쳐주신 하나님은 나도 고쳐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40일 작정 새벽기도회가 끝난 후 병원에 갔더니 암이 깨끗이 사라진 것입니다. 지금은 전국을 다니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때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교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권세를 주셔서 이 기도의 권세를 쓰는 교회는 사도 행전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엄청난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막 16:17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의 앓은뱅이를 일으켰고,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루스드라의 앓은뱅이를 일으켰고, 빌립보의 감각 문을 열었습니다. 이 권세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권세를 쓰는 자는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도하고 체휼하고 간증하면서, 세상과 죄악을 이기고 마귀 권세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시다가 주님 앞에서 상 받는 믿음의 승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ongkpk@hotmail.com



오레곤벤쿠버 교회연합회 2022 선교대회에서 윤천석 선교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오레곤벤쿠버 교회연합회 2022 선교대회

선교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영광스러운 행위

오레곤벤쿠버교회연합회(회장 주환준 목사)가 해마다 실시하는 오레곤선교대회가 '우리가 가야 주님이 오신다'란 주제로 9월 9일(금)부터 3일간 4번의 집회가 에덴장로교회와 벨엘장로교회에서 개최됐다. 10일(토) 오후 7시에 에덴장로교회(담임 원정훈 목사)에서 오레곤벤쿠버 목사회장 김길운 목사의 사회로 열린 둘째 날 저녁 집회는 김종연 목사(바이블선교회 담임)의 기도와 빌리지침례교회(담임 최규진 목사) 찬양대의 특송에 이어 윤천석 멕시코 선교사가 '담장을 넘는 선교(히 13:8-21)'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윤천석 선교사는 "선교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해야 하는데 안정적인 사역환경에서 선교현장을 방문했을 때 주님의 음성을 접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선교사로 헌신하고 선교현장에 놓였을 때 주님의 음성을 접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며 "주님의 음성을 선교사로 헌신한 후에 접한 이유는 주님이 영문 밖에 계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마음이 계신 곳은 영문 밖"이라 설명했다. 그는 "주를 믿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기적을 바라지만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영문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영문...

안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간이 아닌 인간이 만든 공간이며 그리스도께서 다루시던 공간이었다. 내 삶의 원인과 결과를 하나님 안에서 찾아내는 세계가 복음의 세계"라고 언급했다. 윤 선교사는 "늘 옳고 그름이라는 잣대 안에서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 복음과 하나님나라를 알려주셨다. 선교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영광스러운 행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행위이며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는 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첫째날 9일(금) 저녁 집회는 이재환 선교사(컴미션)가 '선교적 종말'이란 제목으로 10일(토) 오전 집회는 이재환 선교사가 요나선교학교 특강을 했다. 마지막 집회는 9월 11일, 주일 오후 4시에 벨엘장로교회(담임 이돈하 목사)에서 교회연합회장 주환준 목사의 사회로 연합회 총무 구자민 목사의 기도예 이어 특송은 목회자들이 맡았으며 감사 이재환 선교사가 말씀을 증거 했으며 직전 목사회장인 김일환 목사(리조이스교회 담임)가 축도했다. <박준호 기자 영상취재>



타코마제일침례교회 가을 부흥회에서 신동일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타코마제일침례교회 가을 부흥회

"교회의 존재목적은 붙들고 끝까지 올인하자"

타코마제일침례교회(담임 송경원 목사) 가을 부흥회가 '교회에 일어나라'라는 주제로 9일(금)부터 11일(주일)까지 신동일 목사(휴스턴 서울침례교회 영어회중 담임)가 강사로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찬양팀 찬양인도와 송경원 목사 기도로 시작된 첫째날 예배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창...

1:24-31)'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신동일 목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있다"며 "21세기 교회실정은 실망 지침 상처 원망 등이다. 목회자들이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실천하고...

권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목사는 "구원받지 못한 목회자와 장로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니 교회에 잡음이 있게 된다. 목회자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건지 알지 못한 채 목회를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전통적인 교회로 머물게 되었다. 성경보다 신학을 중시하게 되었다"며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인 무리들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속에 살 때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좋으신 하나님을 광고하라고 하신 것이며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예수를 영접해서 제자 만드는 일을 이 교회에서 해야 한다. 교회를 통해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 간증이 끊임없이 나타나야 한다"라며 "교회의 존재 목적을 붙들고 주님오시는 날까지 올인하여 끝까지 나아가는 교회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집회는 합심기도 후 송경원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영상취재>



해외한인장로회 서노회 정기노회가 웨스트힐 교회서 열렸다

KPCA 제99회 서노회 열려

노회장 박성규 목사, 부노회장 조준석 목사, 변윤석 장로

해외한인장로회 제99회 서노회 정기노회가 지난 9월 8일(목) 오전9시~오후3시까지 웨스트힐교회(오명찬 목사 시무)에서 열린 가운데 신임노회장에 주님세운교회 박성규 목사가 선출되었다. 이번 서노회 정기노회는 서노회에 새로 가입한 웨스트힐교회에서 열렸고, 지시위원에는 웨스트힐교회 당회 서기 배기웅 장로가 선정되었다. 또 노회 장로고시에 합격한 갈보리 믿음교회(강진웅 목사 시무)의 고길중 씨, 김현태 씨, 한용배 씨 3명과 나성영락교회(총회측, 임시당회장 강진웅 목사)의 정영정 씨, 김미선 씨 등 모두 5명에 게 장로임직을 허락하였고 노회석상에서 인사하는 순서가...

있었다. 5명의 장로임직식은 9월 18일(주일) 오후3시에 갈보리믿음교회에서 열리며 이날 설교는 노회장 박성규 목사가 담당한다. 한편 이날 선출된 서노회 신임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노회장 :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 △목사부노회장 : 조준석 목사(예수생명팀교회), △장로부노회장 : 변윤석 장로(성광장로교회), △서기 : 오명찬 목사(웨스트힐교회), △부서기 : 최관능 목사(나성서남교회), △회록서기 : 김조셉 목사(성광장로교회), △부회록서기 : 문예리 목사(갈보리 믿음교회), △회계 : 손홍수 장로(주님세운교회), △부회계 : 손인국 장로(웨스트힐교회) <정리: 박준호 기자>

가미노회 75회 정기 노회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가미노회(노회장 고철주 목사) 제 75회 가을노회가 지난 8월 30일(화) 켈러리제일장로교회(강진우 목사 시무)에서 열렸다. 김성훈 목사(서기, 빌라델비아교회)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에서 노회장 고철주 목사(켈러리제일장로교회)가 설교했으며 손승희 목사(켈러리사랑의교회)가 성찬식을 집례 했다. 이어 진행된 회무처리를 통해 밴쿠버제일장로교회의 박상철 목사와 켈로나한인장로교회의 강영진 목사의 시무 사면 청원 및 에드몬튼제일장로교회의 심영택 목사의 시무 사면과 동시에 임시 당회장 청원이 이루어졌으며, 배세원 목사(밴쿠버제일장로교회), 김준호 목사(켈로나한인장로교회)와 우정수 목사(켈러리지구촌교회)가 노...

회에 가입했고, 박창룡 목사가 시무하는 에드몬튼사랑의교회도 노회에 가입했다. 또한 유용환 목사, 이인장 목사, 김영기 선교사, 이경원 목사, 이승훈 목사의 노회 탈퇴도 본 노회에 접수됐다. 그외 켈러리제일장로교회에서 장로 증원 연장 신청과 장로 고교사 시행되어 에드몬튼제일장로교회의 김중근, 박중순 집사가 합격했으며 신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학장 유재일 목사, 이사장 심영택 목사, 운영 이사 강영진 목사의 시무 사면으로 인해 새로운 이사진 선결과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강진우 목사가 맡기로 했다. 또한 총회에서 요청한 안건에 대해 본 노회에서는 예배 모범에 나와 있는 <주일에예시시간>에는 예배와 성찬만 행하고 다른 예식은 다른 날에 행하되 가급...

적 간단히 행함이 좋다)라는 문구를 (주일에는 예배와 성례 및 위임식, 임직식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안에 대하여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특별히...

이번노회를 위해 켈러리 지역 교회들의 적극적인 섬김과 교제의 시간으로 참석한 이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기사제공 가미노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가미노회가 켈러리제일장로교회에서 열렸다

피종진 목사 9월 부흥성회
○ 홍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사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Th.D)
010-5255-3777
God Bless 3377@gmail.com
1(목) 한국교회예배회복운동본부 제주권퍼런스 제8회 Spirituality Conference 장소 : 제주시 오솔로호텔 Lecture Hall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김기성 목사) 010-5270-7105
2(금)~3(토) 천안 위대한 약속교회 (윤재민 목사 임미향 목사) 010-6201-8374
4(주)~5(월) 인천 소망교회 (황규래 목사) 010-4423-2838
6(화)~7(수)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대표회장 정태운 목사) 010-5418-6717 장소 : 여수버치리조트
8(목) 서울국제총회신학원(이사장 강영준 목사)010-9260-1091
13(화) 오후 서울 주평안교회 (김명길 목사) 010-9082-7325
14(수) 오후 충주 금식기도원 (원장 김승자 목사) 주최 : 느헤미야 부흥사업의회 대표회장 김승희 목사 010-7522-0236
15(목) 저녁 한일산 기도원 (원장 이영금 목사) 주최, 한미연합부흥장사단 대표단장 이귀범 목사 010-2238-3999
18(주)저녁 서울 송파열린교회 (김희준 목사) 010-8633-0190
19(월)~20(화) 군산 엘리기도원 (원장 송영선) 010-2017-8874 주최 뉴글로벌 부흥사회 (대표회장 정태운 목사)
21(수) 오전 서울 종로 한국 원로목자교회 (안드레 목사 베드로 목사) 010-4209-7004 서울 종로5가 연합회관 3층
21(수) 오후 오산리교회실기금식기도원 (원장 김원철 목사) (02) 6181-9282 한반도 평화통일기원부흥성회 (대회장 민학근 목사) 010-3944-7962
21(수) 저녁 서울강남반석기도원 (원장 남보석 목사) 010-7220-0733
24(토) 오전 Honest 클럽 (회장 고해원 목사) 010-8414-2000 장소 국회 헌정관
25(주)~27(화) 구미 덕천제일교회 (정태운 목사) 010-2296-0675
28(수) 오후 강남금식기도원 (원장 최정인 목사) 교무부장 김진성 목사) 010-3790-2462
29(목) 오전 목포기도원 (원장 허정인 목사) 010-3004-0675 주최 한국복음화운동본부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총재 이종인 목사 대표회장 김재홍 목사) 010-9068-9197
양평 힐링기도원 (031) 774-8591 "하.사.세" 대회 대회장 김복이 목사
29(목) 저녁

동부교계 게시판

“어메이징 그레이스” 뉴저지동산교회 가을 찬양 콘서트

뉴저지동산교회(담임 윤명호 목사)는 “어메이징 그레이스(Amazing Grace)”라는 주제로 제11회 가을밤의 행복한 찬양 콘서트를 9월 25일 주일 오후 5시에 개최한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활동하는 성악가 이요한(바리톤), 한종원(베이스), 윤우영(테너), 조한나(소프라노), 주영미(피아노) 등이 출연하는 가을 찬양 콘서트에 초대한다.

▲문의: 201-229-1561

돌로스 경배와 찬양 집회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돌로스 경배와 찬양집회는 뉴저지우리교회(담임 오종민 목사)에서 9월 29일(목) 저녁 8시에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라는 주제로 찬양 집회를 개최한다.

▲문의: 201-638-1627

문석호 목사 사역 50주년 기념 및 저서 발간 감사예배

문석호 목사 사역 50주년 기념 및 새로운 사역을 향한 저서 발간 감사예배를 9월 25일(주일) 저녁 5시에 뉴욕베데스다교회(담임 김원기 목사)에서 드릴 예정이다. 모든 순서 후 참석자들에게 저녁 식사와 저서를 제공한다.

▲문의: 박시훈 목사 917-992-5200, 이문범 목사 347-256-1477

뉴저지침소망교회 담임목사 청빙

뉴저지침소망교회(담임 배세진 목사)에서 담임목사를 다음과 같이 청빙 한다.

자격조건: 1) 정규신학대학교 M.Div 이상 학위 소지자 2) 장로교 교단 가입에 문제 없는 자 3) 미국에서 합법적 신분 (영주권 이상) 4) 담임목사/부목사 등 목회 경력 3년 이상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영문) 1부, 최근 설교 2개 (음성 또는 동영상), 최근 가족사건 자기소개서(목회소명, 목회경험, 신앙고백, 성장배경, 가족소개), 목사안수증명서

접수마감: 2022년 9월 25일(주일)에 접수 마감 예정

▲문의 및 접수처: koreanhopepc@gmail.com

조지아 콜럼버스반석장로교회 한어권 부교역자 청빙

조지아 콜럼버스반석장로교회(담임 신다니엘 목사)에서 한어권 사역을 담당할 Part time 혹은 Full time 교역자를 아래와 같이 청빙한다.

자격조건: 정규신학대학교 재학 이상, 찬양 사역 가능자 대우: 사례비 조정 가능, 영주권 스폰서 가능 지원서류: 이력서, 최근 설교 동영상 1개, 추천서(목회자 2명)

▲문의 및 접수처: danielshin2739@gmail.com



뉴욕노회 제91회 정기노회 중 단체 사진을 찍었다

KAPC 뉴욕노회 제91회 정기노회

김성은, 전은호 목사 안수식도 열려...

미주 한인 예수교장로교회(KAPC) 뉴욕노회(노회장 이윤석 목사)는 9월 13일(화) 뉴욕 선교교회(담임 김경수 목사, 박병섭 목사)에서 제91회 정기노회를 가졌다. 개회 예배는 노회장 이윤석 목사의 인도로 기도 정인수 목사(회록서기), 성경봉독 신동기 목사(뉴욕심포니교회)에 이어 노회장 이윤석 목사의 설교, 임병순 목사(부노회장)의 성찬예식 집례로 진행됐다. 이윤석 목사는 “절대 섬김”(마 20:17-28)의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섬기셨듯이 목회자로서 으뜸이 되는 곳이 아닌 낮은 곳에서 끝까지 섬길 수 있어야 한다”고

설교했다. 이어 뉴욕노회는 노회장 이윤석 목사의 사회로 회무처리를 진행하여 ▲선의교회 박종원 목사 이명 ▲서포카운티장로교회 김병인 목사 이명 ▲뉴욕선교교회(담임 김경수 목사, 박병섭 목사) 전은호 전도사 목사 안수 허락 청원 및 부목사 창빙 청원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김성은 전도사 목사 안수 허락 청원 및 부목사 창빙 청원 등을 처리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목사 안수식이 열려 퀸즈장로교회 김성은 전도사와 뉴욕선교교회 전은호 전도사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

(김재상 기자)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2022 가을학기 개강예배

목회학 5명 포함 총 13명의 신입생 등록, 새학기 시작!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김성국 목사)가 2022년 가을학기 개강예배가 9월 6일(화) 저녁 7시 퀸즈장로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개강예배는 경배와 찬양을 시작으로 총무처장 이종원 목사의 인도, 동문회장 김경수 목사의 기도, 학장 김성국 목사의 설교로 진행됐다. 김성국 목사는 “이 때를 위하여”(에스더 4:14-17)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김성국 목사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자신의 만족만을 찾는 잘못된 표지판을 따라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며 에스더가 그러하였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여 귀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신학교 찬양대가 “그가 오신 이유”를 찬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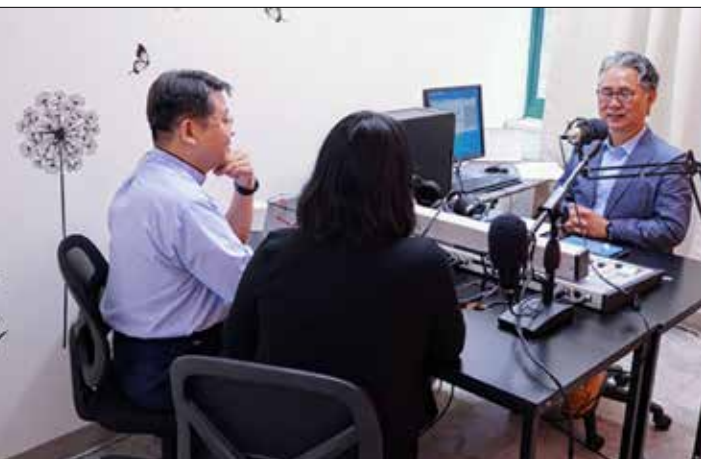
했으며 신입생들에게 교훈패를 증정한 뒤, 학장 장학생 1명, 교수 장학생 2명, 근로장학생 5명, 영생장학재단 장학금 3명 증서 전달식 및 동문회 장학금 4명에게 장학금을 각각 수여했다. 학장 정기태 목사는 광고를 통해 ‘목회학과 5명(캄보디아 2명 포함), 기독교교육학과 1명, 신학교과 1명, 신학부 1명, 신학석사 4명, 편목과정 1명까지 총 13명의 신입생을 하나님께서 보내 주셔서 함께 공부하게 됐다. 총 60명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모든 순서를 학장 김성국 목사의 축도로 마쳤으며 예배 후 신입생 환영회로 즐거운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김재상 기자)



2022 가을학기 개강예배 후 학생들과 교수진이 함께 사진을 찍었다



중국어 예배부 찬양대가 힘차게 찬양하고 있다



나무선교회 이경세 목사가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나무선교회, 플랫폼 옮겨 FM 87.7 통해 선교방송

“땅 끝까지” 라는 주제로 매주 1시간 씩 방송 진행

나무선교회(JTMA, Jesus Tree Mission Associate 대표 이경세 목사) 선교방송은 지난 3월 5일에 라디오를 통해 첫 방송이 송출됐다.

본 방송은 “땅 끝까지”라는 선교의 주제를 가지고 매주 1시간 씩 방송되고 있으며, 해외 선교만 아니라 한인교회들의 지역선교도 소개하여 한인사회에 선교에 대한 거리감을 좁혔다. 나무선교회는 9월 4일부터 플랫폼 옮겨 FM 87.7을 통해 주일 오후 7시에 1시간씩 방송을 시작했다. 나무선교회 대표 이경세 목사는 “새롭게 방송을 시작한다. 선교사들의 삶과 애환을, 그리고 뉴욕의 많은 한인 교회들의 모

습을 전하는 시간이다. 선교 이야기를 통해 섬기는 교회 모습이 세상에 잘 전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무방송은 매주 선교나 교회와 관련된 게스트를 초청하여 진행되며, 이경세 목사가 방송의 사회를 맡고 있다. 방송에 같이 출연하며 한인 이민교회들에게 올곧은 시각을 제공하고 있는 이사 노성보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귀한 선교방송을 할 수 있어 감사드리고, 방송을 통해 많은 분들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가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퀸즈장로교회, 중국어 예배부 추석맞이 음악전도집회

중국어권 찬양대, 중국전통악기 ‘얼후’ 공연 및 간증을 통한 전도집회로 열려

퀸즈장로교회(김성국 목사) 중국어 예배부(담임 첸위지 목사)는 지난 9월 11일(주일) 오후 5시부터 추석맞이 음악 전도 집회를 열었다. 중국어 예배부는 퀸즈장로교회의 다민족 사역(영어권, 중국어권, 러시아어권) 가운데 활발히 성장해 왔다. 퀸즈장로교회 담임 김성국 목사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중국어부 찬양대(지휘 윤원상 전도사)의 힘찬 찬양으로 첫 문을

열었다. 이어 수잔 전도사의 중국전통 현악기인 얼후 연주 공연과 간증의 시간, 윤원상 전도사의 색소폰과 수잔 전도사의 얼후 합주 공연과 찬양대의 메인 합동 찬양으로 진행됐다. 이날 중국어 예배부 첸위지 목사는 설교 말씀을 통해 전도대상자에게 복음을 선포했으며 모든 순서는 첸위지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김재상 기자)

월드밀알선교합창단의 회복, 카네기홀 ‘찬양대축제’

팬데믹 기간 동안 중단 후 2년 만에 다시 열려

팬데믹 기간 2년 동안 중단되었던 월드밀알선교합창단이 제19회 찬양대축제 10월 9일(주일) 오후 7시 카네기홀에서 개최한다. 월드밀알은 2001년 9.11테러로 황폐해진 모습에 영적도전을 받고 다음 해인 2002년부터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2년을 제외하고 매년 맨하탄 카네기홀에서 찬양대축

제를 열어왔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지향하며 35년째 찬양사역 한 길을 걷고 있는 월드밀알선교합창단의 올해 찬양대축제는 특별히 CTS 뉴욕방송 창립 15주년 기념, 사랑의 집 후원이다. 찬양대축제에서 프라미스교회 100명, 뉴욕에일장로교회 100명, 경남장로합창단 100명, 테너 신남섭과 소프라노 구하나, 월드밀알선교합창단 170명 등이 월드밀알심포니오케스트라 40명의 연주 속에 찬양한다. 특별히 지난 7월 열린 엘살바도르 월드밀알 찬양대행진에서 큰 은혜를 끼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자 엘살바도르 국회의원인 아로네트 멘시아(Aronette Mencia) 의원이 참가하여 간증하고 인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정리: 김재상 기자)



월드밀알선교합창단 카네기홀 '찬양대축제' 포스터



뉴욕교협에서 뉴욕전도집회 발표회를 가졌다

뉴욕교협, 뉴욕전도집회 개최

전도간증집회와 함께 맨하탄, 플러싱 거리 노방전도 진행 예정

뉴욕교협(회장 김희복 목사)에서 뉴욕전도집회를 개최한다. 본 전도집회는 9월 29일(목)부터 10월 1일(토)까지 저녁 집회와 거리전도를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사는 와싱턴중앙장로교회(류영렬 목사) 김성완 은퇴장로가 9월 29일(목)과 30일(금) 저녁 7시 30분에 하크네시야교회에서 전도간증집회를 인도할 예정

이다. 30일(금) 오전에는 플러싱 유니온스트리트에서 시작하여 노던을 거쳐 파슨 블러바드까지, 10월 1일(토) 오전에는 맨하탄 32가 한인타운에서 거리 노방전도가 진행된다. 뉴욕교협은 뉴욕전도집회 준비기 도회를 9월 21일(수) 오전 10시반에 교협사무실 2층 예배실에서 가질 예정이다. (정리: 김재상 기자)

퀸즈한인교회, 뉴욕신학세미나, 차준희 교수

목회자와 신학생 대상, “열두 예언자의 영성” 을 주제로 열려



뉴욕신학세미나 포스터

퀸즈한인교회(담임 김바나바 목사)에서 목회자와 신학생을 대상으로 한 ‘뉴욕신학세미나’를 가질 예정이다. 퀸즈한인교회는 교회설립 50주년 맞아 2019년부터 뉴욕신학세미나를 시작했으며, 팬데믹으로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열어왔다. 이번 신학세미나의 강사는 차준희 교수로 한국구약학회 전 회장, 두란노바이블칼리지 강사, 한세대 구약학 교수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학자이다. “열두 예언자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는 9월 19일(월)부터 20일(화)까지 진행된다. 19일(월) 오전 9시에 ‘1강: 호세아와 요엘의 영성’를 시작으로 ‘2강: 아모스와 오바댜의 영성’, ‘3강: 요나와 미가의 영성’, ‘4강: 나훔과 하박국의 영성’ 등 강의가 이

어진다. 20일(화) 진행되는 강의는 ‘5강: 스바냐와 학개의 영성’, ‘6강: 스가랴와 말라기의 영성’, ‘7강: 구약의 성령론’ 등이며, 질문과 답도 진행된다. 선착순 50명이며, 등록비는 50불이다. 교재 및 점심과 간식을 제공한다. (정리: 김재상 기자)

사랑의빛선교교회 선교대회

“성도는 이미 선교사! 선교사명 감당해야”

사랑의빛선교교회(담임 윤대혁 목사) 2022 선교대회가 '주 예수 우리 산 소망'이라는 주제로 7일(수)부터 11일(주일)까지 개최됐다. 찬양팀의 찬양 인도와 윤대혁 목사 사회로 시작된 첫날 선교대회는 GMI 파송 선교사 스테판 박 선교사(페루) 선교보고가 있었다.

박 선교사는 “한국에서 태어나 호주로 이민을 갔으며 그곳에서 대학을 졸업했다. 졸업 후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게 되었다. 하지만 막대한 손해를 보며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길 정도로 마약중독에 빠져버렸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내 삶을 회개하게 되고 가정예배와 기도, 그리고 말씀생활로 삶이 변하게 되었으며 마약중독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미국에서의 28년의 삶을 정리하고 멕시코로 가게 되었다”고 말했다. 현재 페루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는 “페루는 300년 동안 스페인의



사랑의빛선교교회 2022 선교대회에서 이재환 선교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식민지로 살았으며 종교에 대한 마음은 닫힌 상태. 야촌이라는 곳에서 영어와 수학교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곳은 잉카신을 숭배하는 곳이며 외부인이 이곳에서 이주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곳이다. 감사하게도 교사로 재직하고자 하는 학교장을 찾아갔는데 그가 교사로 받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학교근처에 살 수 있는 집까지

찾게 해주었다. 복음이 야촌에 심어질수 있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날 이재환 선교사(컴미션)는 ‘바울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다(행 18:18)’라는 제목

(박준호 기자)



감사한인교회 교육세미나에서 유수연 ABC교육위원이 강의하고 있다

감사한인교회 교육세미나

MZ세대는 외로운 세대... 건강한 공동체 필요

감사한인교회(담임 구봉주 목사) 교육세미나가 9일(금) 오후 7시30분에 열렸다. 감사한인교회 찬양팀 인도와 구봉주 목사 사회로 시작된 세미나는 유수연 ABC 교육위원이 오후 6:11-18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유 교육위원은 “어린 시절에 미국에 이민왔는데 당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히스패닉들이 많았다. 그들에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억센 남자아이처럼 살았다. 하지만 13세 때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후 더 이상 아이들을 괴롭히지 않게 되었다”고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 유 위원은 “신앙생활은 어린 시절부터 해야 한다. 신학교를 다니고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했지만 자녀들이 같은 신앙을 받았다고 보장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팬데믹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탄식을 주셨다. 교육사업하고 전도사 사역도 했고 청소년 상담도 많이 했지만 집집마다 자녀들이 정신문제 우울증 공황장애 불

안증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최선을 다해 교육시키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신앙교육을 했다. 그러나 세상의 문화전쟁이 워낙 거세다보니 아이들의 신앙이 많이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위원이지만 정치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주님께서 팬데믹 때 차세대 위한 마음을 주셨다. 20대, 30대 등 자녀세대를 사탄의 세력이 삼키는 걸 느끼게 되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이 세상에 사탄이 공중세력 잡아셀폰과 컴퓨터로 10-30대까지 노예로 삼아 영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아버렸다. 그것이 두렵다”며 “가주 하원에 출마하게 된 동기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팔이 되어 알리기 위해서”라고 힘써 말했다.

그는 또한 “MZ세대는 고립되고 외로운 세대이며 전화보다 문자로 소통이 가능한 세대”라고 설명하며 “Z세대의 65%가 셀폰으로 살아가고 있다. 가정 교회 등 건강한 커뮤니티에서 공동체가 없으면 외로움에 빠진다. 교회 차세대그룹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체험하고 죄사함 받고 기가 힘써야 한다. 우리 자녀들은 상상을 초월하게 흑암에 빠지게 되었다. 다시 한 번 결심해서 우리가 제대로 서야 자녀들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캘리포니아 약법이 모두 통과하는 이유는 주상원 40명 중 상원이 31명 하원의원 80명 중 55명이 민주당”이라 지적하며 “수심만발 들어 교육교재에 CRT와 LGBT 내용을 포함시켜 제작하고 있다. 법을 통과하는 의회가 민주당이 과반이상이다. 세금이 10년 동안 계속 올라갔고 작년에 9조8천억이 거둬들였다. 그래서 텍사스 조지아 플로리다로 이사 가게 될 것이다. 캘리포니아는 우리가 지켜야 할 집이며 우리자녀가 대대로 살아갈 집”이라며 “11월에 치러질 선거에서 캘리포니아가 더 이상 최악의 주가 되지 않도록 투표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전성진 목사 특별찬양 간증집회에서 전성진 목사가 간증하고 있다

전성진 목사 특별찬양 간증집회

고난속에서 이겨낼수 있었던 것은 찬송의 힘

갈보리선교교회(담임 심상은 목사)는 전성진 목사 특별찬양 간증집회를 9일(금) 오후 8시에 개최했다. 심상은 목사 사회로 열린 간증집회에서 전성진 목사는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내었다. 그는 80년대 미국의 백인사회에서 동양인이라는 인종적 핸디캡을 실력으로 극복해 낸 이야기, 그리고 미국에서 다섯 손가락에 들어가는 학교에서 교수가 된 이야기, 세계적인 시카고 리릭 오페라단에 동양인 최초로 입단한 이야기 등을 들려줬다. 목사의 아들로 출생한 전성진 목사는 자신의 뜻한 일을 하지 못하고 어려움에 놓였을 때 주변 환경과 주님을 원망했지만 자신의 놓인 환경을 이겨내는 찬송은 항상 부르게 되었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 고난에 놓였을 때 이겨낼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찬송을 부르게 하셨다”며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이 더 좋아 세상으로 향해 나아갔을 때에도 주님은 언제나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명예와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주셨지만 내 교만으로 인해 건강을 잃게 하셨다”며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해주셨고 이를 통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2018년 아메리칸 컨서바토리 정교수를 은퇴하고 현재 찬송교실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이날 전성진 목사는 ‘이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너 근심걱정 말아라’,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등을 불렀다.

(박준호 기자)

나성금란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감사예배

전진하는 시대에 필요한 성도들이 되기를...

나성금란교회(담임 이석부 목사) 창립 40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11일(주일) 11시에 가졌다. 이석부 목사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경배와 찬양, 신상전 장로 기도와 창립을 함께했던 조원창 장로, 조수자 권사, 양세직 장로, 양영은 권사, 박성환 장로, 박나미 권사에게 감사패 수여했다. 이어 본교회 창립 목사인 김건도 목사 부인 김혜원 사모가 축하 인사들했다.

김혜원 사모는 “교회를 시작할 때 40년 후 오늘을 상상하지 못했다. 금란교회를 시작할 때 미약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총 속에 교인들의 믿음과 헌신 속에서 교회가 성장한 것 보니 감사가 넘친다”며 “지금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은 윤선식 정상용 이석부 목사에게 감사드립니다. 주님오실 때까지 영혼구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 바란다. 김건도 목사가 하나님의 부름받으신지 5년이 되었다. 나성금란교회가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마크 나카가와 감리사가 축사했으며 그랜트 하기가 감독이 축사가 영상으로 소개됐다. 이어 성가대 찬양이 있은 후 이석부 목사가 ‘40년 그리고...’(행 11:19-26)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석부 목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전도와 말씀 배우기 등 아름다운 동역에 참여하여 선교와 구제를 통해 예수님 성품을 닮기 원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 40은 준비라는 의미가 있다. 성경에서 40은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기간, 잘 훈련하는 기간, 잘 훈련하는 기간 영광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

나성금란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감사예배에서 이라고 말했다. 창립시절부터 함께한 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이 목사는 “새로 인사하고 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우크라이나 승리 기원 연합음악회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기원하는 한인·우크라이나 연합음악회가 18일(주일) 오후 5시30분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남가주음악가협회(회장 이동물), 우크라이나 문화센터와 아트센터가 공동으로 주관으로 열린다. 출연진은 한·우크라이나 연합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소프라노 이영주, 마가리타 쿠지나, 보컬리스트 아사 고르스카, 테너 워런 김, 최원현, 오지영, 바이얼리니스트 이리나 보로시나, 그리고 외대코랄과 미주여성코랄, LA목사중창단이다.

▲티켓 문의: (213)663-2228 박인호 사무국장, holycityusa@yahoo.com

실비치 한인합창단 정기 연주회

실비치 한인합창단(지휘 백경환 목사) 제10회 정기 연주회가 오는 9월 17일(토) 오후 2시 실비치 커뮤니티 교회에서 개최된다. 실비치 한인합창단은 이성남 씨가 단장을 맡고 있다.

이날 연주회에서는 피아노 조애영, 소프라노 이영주, 클라리넷 나민주 목사가 출연한다.

▲ 문의: (973)202-8192, (973)202-8192

연목회 회장 이취임식·세미나

남가주연세동문목회자회 회장 이취임식 및 세미나를 19일(월)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시50분까지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 공개홀에서 갖는다. 이날 회장 장근성 목사가 이임하고 신임회장 이영선 목사가 취임한다. 또한 ‘슬퍼함에서 회복과 기쁨으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굿네이버스 이사장 이일하 목사가 ‘서울에서 글로벌 국가로서의 월드미션, 그 과제와 기쁨’ △HCMIA 이사 김효남 목사가 ‘대유행 후 정부 평가, 프로페셔널 헬스케어 및 그 기쁨과 관련하여-팬데믹 이후 목회진단 병원 공인 채플린 역할과 기쁨 측면에서’ △살림스교회 담임 천진석 목사가 ‘팬데믹 이후 정부평가-환대,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핵심 윤리’라는 제목으로 각각 세미나를 인도한다.

▲ 문의: (714)484-1190



한빛교회 원로목사 추대 및 담임목사 취임예배에 참석 한 목회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사진 우측아래 원안은 류성창 담임목사와 차광일 원로목사 모습

한빛교회 원로목사 추대 및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견다보면 소망 갖게 돼

한빛교회는 차광일 원로목사 추대 및 류성창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를 11일(주일) 오후 4시에 거행했다. 류성창 목사는 “좋은 교회에서 섬길 수 있음에 다보면 소망을 갖게 된다”며 “한빛교회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긴다. 우리 다같이 2대 목회자가 되어 맡겨진 역할을 다하여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한빛교회의 부흥발전을 해 주실 것”이라며 “오직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말했다.

차광일 목사는 “신33:29 말씀에 있는 ‘이스라엘은 행복자’라는 생각이 났다. 행복하고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며 “지나간 시간 시간동안 목사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남다른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하다. 둘째 성도들에게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하다. 장로님부터 청년까지 다 있어서 감사하다. 그분들과 함께 동역 할수 있게 해주셔서 오늘이 있었다. 세번째 가족이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하다. 하나님께 영광올려드린다”고 말했다.

김영근 치리목사(감찰장, 샘솟는 교회 담임) 집례로 열린 1부예배는 박창현 목사(LA동지회 방회 서기, 가주목양교회)가 기도했으며 한빛성가대가 찬양했

으며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시23:1-6)’라는 제목으로 총회장 이대우 목사(필라한빛교회)가 말씀을 전했다.

이어 신동수 목사(LA동지회 부회장, 로고스교회) 집례로 시작된 담임목사 취임식은 목사님과 교회대표에게 서약, 치리권 부여, 공포로 이어졌으며 담임목사에게 취임 축하패를 전달했다. 이어 류성창 담임목사가 답사했다. 류성창 목사 집례로 시작된 3부 원로목사 추대식은 원로목사 소개 및 추대의 말씀, 차광일 목사에게 총회에서 공로패 지방회에서 원로목사 축하패 원로목사 추대패 및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어 차광일 원로목사가 답사했다. 김영근 치리목사 집례로 진행된 4부 축하의 시간은 바이올린 에스터 민과 첼로 에릭 최의 축하 연주, 테너 최원현 씨와 LA동지회 3040 목자들이 축하를 불렀다. 이어 이상복 목사(전 총회장, 연합선교교회)가 담임목사에게, 조종근 목사(전 총회장, 시온성결교회 원로)가 성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했다. 이날 모든 순서는 박성삼 목사(전 총회장, 링컨사이어 한인교회 방회 서기, 가주목양교회)가 기도했으며 한빛성가대가 찬양했

(박준호 기자)

여성안수 7전8기?...올해 교단총회 핫이슈는

곧 열리는 주요교단의 정기총회 안건들

한국교회의 '정기교회'라 일컬어지는 주요교단의 정기 총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총회는 엔데믹 상황에서 맞는 첫 총회가 될 전망이다. 최대 이슈로 꼽히는 '이중직 목회자' 허락 여부와 전 세계의 긴급 현안인 기후·환경 문제를 교회가 본격적으로 다루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중직·기후위기 쟁점

13일 주요교단에 따르면 예정통합총회는 '자비량(이중직) 목회 현의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검토한다. 예정통합 정치부는 "자비량 목회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자립 대상 교회(미자립교회)로 한정하고 노회의 지도 하에 허락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총회 임원회에 제출했다. 일종의 제한적 허락인 셈이다. 2015년부터 자비량 목회를 연구해 온 예정통합이 이번 총회에서 연구 결과를 수용할 경우, 교단 소속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은 자비량 목회의 길이 열린다.

예정통합과 함께 양대 장로교단으로 꼽히는 예정합동총회도 '목회자 이중직 지원 특별위원회 설치' '목회자 이중직 지원협의체 설치'에 관한 안건이 올라와 있다. 대표적인 보수교단인 예정합동 교단에서 이중직에 대한 현의안이 올라왔다는 것은 정통 목회에 대한 시대적 변화상을 반영한다.

특히 올해 총회는 '기후·환경정의'를 실현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예정통합·합동·백석·합신·대신을 비롯해 한국기

독교장로회(기장)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모두 '기후위기 대응지침'을 채택하거나 관련 위원회 신설을 두고 토론을 벌인다. 기후 위기 대응에 교회가 동참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면서 상당수 교단이 이 안건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예정합동 여성안수, 7전8기?

예정합동 총회(총회장 배광식 목사)가 여성 안수 안건을 다루는 조미의 관심사다. 김중은 여성사역자치위항상및사역개발위원회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107회 총회에 여성 사역자 지위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보고하고 안건을 청원하겠다"고 밝혔다. 예정합동 총회에 여성 안수 청원이 올라온 횟수는 그동안 7차례나 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부총회장 선거 방식과 관련, '맞다아시 선거 제도' 개정안도 눈길을 끈다. 이 제도는 투표를 통해 2명을 선정할 후 제비뽑기로 최종 선출하는 방법으로 금권 선거를 막는 방안으로 꼽힌다. 이혼한 목사가 노회 임원이나 시찰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묻는 질의도 올라와 있다. 예정백석 총회는 교단 소속 목회자들이 학원 선교에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들을 '선교사'로 명명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 선교사' 제도를 다룬다.

SFC, 역사속으로 사라지나

예정고신 총회에는 학생신앙운동(SFC) 폐지 안건이 올라와



논란을 빚고 있다. 1947년 시작된 SFC는 예정고신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학생 신앙 운동 단체다. 하지만 예정고신 미래정책위원회는 운영과 재정 등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이번 총회에 폐지 안건을 상정했다. 예정합신 총회는 '미자립교회 목회자 후원 방안'을 논의한다. 안건을 현의한 총남노회는 "미자립교회 목회자가 퇴직 후 목회자가 지녀야 할 품위를 지킬 수 있을 만큼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납부금을 자립 교회가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예정대신 총회는 지역 교회 목회자가 시무하는 교회 건물이나 부동산을 사유화하기 위해 불법 매매할 경우 목사직을 면직하도록 하는 현의안을 검토한다. 예정통합의 은퇴 목회자 연금 지급률 조정은 뜨거운 감자다. 개정안은 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평균 보수액 산정액을 현행 '은퇴 전 3년 평균 수령액'에서 '연금 납입 기간 전체 평균 수령액'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이 경우 평균 보수액이 대폭 낮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지급률이 14.93%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침총회는 교단 로고를 변경하는 안건을 다룬다.

"추석에 갈 고향 없지만... 서로가 있기에 외롭지 않았어요"

탈북민, 다문화 가정 모인 '통일 한마당' 열려

추석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명절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예수마음교회(이무열 목사)는 11~12일 인천 교회에서 탈북민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잔치인 '통일 한마당'을 열었다.

통일 한마당은 명절만 되면 더 외로운 탈북민과 다문화 가정을 위로하고 서로를 이웃으로 이어주는 자리로 기획됐다. 이무열 목사는 "한국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이들의 추석이 쓸쓸하지 않고 행복한 시간으로 남길 바라는 마음에 통일 한마당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70여 명의 참석자들은 첫날 바비큐 파티부터 시작해 레크리에이션, 노래방, 인근 교통도 관광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즐거운 연휴를 보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예선 후원자들도

참석하면서 통일 한마당은 남과 북, 세계가 한마음이 되는 계기도 됐다.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지 20년이 된 이해성(63) 전도사는 주변 탈북민 10여명과 함께 통일 한마당을 찾았다. 이 전도사는 "명절일수록 고향이 그리워 마음이 많이 아프다. 매년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북한이 잘 보이는 전망대에 가서 형제자매를 생각하며 하염없이 울곤 했다"며 "올해는 같은 처지인 실향민들이 모여 맛있는 것도 먹고 고향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어 기쁜 마음"이라고 말했다.

몽골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바트체체(37)씨는 남편, 두 딸과 함께했다. 자녀들이 어린 데다 코로나19까지 겹쳐 몽골에 계신 부모님을 뵙지 못한 게 8년째다. 그는 "매일 영상



통화로 부모님을 보고 싶은 마음을 달래고 있다"면서 "몽골에 설날은 있지만 추석은 없는데, 한국의 전통을 보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웃었다.

북한이 잘 보이는 교통 전망대에선 탈북민들은 고향을 생각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이 목사는 "통일 한마당이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열려 감사한 마음이다. 참석자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따뜻해지는 시간이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항 목교회격 '대송' 도 물난리... 연휴 복구 안긴힘

교회수집곳 한남노 직격탄, 1층 침수... 이웃교회 발빠르게 봉사단 급파

"진짜 감사는 환경을 초월합니다. 환경을 초월한 감사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주일이었다던 11일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대송교회. 김대훈 목사는 '감사는 은혜의 고백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감회가 남달랐다. 지난 일주일 사이 환경을 초월한 감사가 어떤 것인지 성도들과 함께 마음으로 체험했기 때문이다.

지난 5-6일 400mm 넘는 폭우를 쏟아부은 제11호 태풍 한남노는 경북 포항에 있는 교회 수집곳을 휩쓸고 지나갔다. 12일 현재 예정통합·합동 등 주요교단 등으로부터 피해가 파악된 교회는 20여곳이다. 특히 포항 지역에서 처음으로 설립된 '어머니 교회'인 대송교회도 수마를 피하지 못했다. 대송교회는 이틀간 쏟아진 폭우로 교회 1층이 모두 물에 잠겼다. 유치부와 청소년부 교육관, 노인 성도를 위한 소망부 교제실이 모두 침수됐다. 인근에 있는 칠성천이 갑자기 내린 비로 범람하면서 교회 안까지 물이 흘러 들어온 것이다. 1901

년 세워진 포항의 모교회인 대송교회 역사상 처음 겪는 물난리였다.

주일을 낀 나흘간의 추석 연휴는 수해 복구로 쉴 틈이 없었다. 김대훈 목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귀성객들과 함께 집기들을 빼내고 청소를 하느라 마을 전체가 분주했다. 추석 분위기를 찾기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마을 주택 대부분이 피해를 입었고, 주민 가운데 교회 성도 80여 명이 이재민이 됐다"면서 "시외곽에 있는 작은 마을이라서인지 피해가 큰데도 도움의 손길이 부족한 것 같다"며 교계와 시민단체의 관심을 호소했다.

대송교회를 비롯해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교회들도 물 폭탄을 피해가지 못했다. 엘림교회(유원식 목사)는 지하에 물이 3m까지 차올랐다. 송동교회(박희영 목사)는 교회 주차장과 지하 전체가 허리까지 침수되기도 했다. 도구제일교회(이육관, 노인 성도를 위한 소망부 교제실이 모두 침수됐다. 인근에 있는 칠성천이 갑자기 내린 비로 범람하면서 교회 안까지 물이 흘러 들어온 것이다. 1901



특히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로 쫓겨난 나이에 목숨을 잃은 김모(15)군과 그의 가족들이 다니고 있는 오천제일교회(박성렬 목사)는 성도를 잃은 슬픔에 침수 피해까지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우수관이 파손되면서 폭우가 건물 안까지 들어와 교육관과 자모실, 분당 일부에도 물이 들어쳤다.

기습적인 폭우 피해 상황 속에서도 이웃교회의 발빠른 대응도 눈길을 끌었다. 포항대송교회와 같은 교단(예정통합) 소속의 포항동부교회(김영걸 목사)는 지난 6일 오전 교회 성도 등으로 구성된 재난봉사단원 40여명을 대송면 일대에 급파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단은 예정통합총회가 지난해 처음 조직한 '총회 1호 재난봉사단'으로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 현장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꾸려진 봉사 기구다.

"아시아 선교, 문화·세대간 협력 필수"

리론링 교수 "한국은 선교 역사와 신앙 원로 보유, 경험 전수해야"

팬데믹 이후 5년 만에 모인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침례교회 목회자들은 미래 선교를 위해 차세대 아시아 지도자를 발굴하고 길러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영국 레드클리프칼리지 리론링 선교학 교수는 경기도 성남 지구촌교회 분당채플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침례교연맹(APBF) 제10차 대회' 둘째 날인 지난 6일 선택 특강 시간에 '선교의 미래: 세계 기독교에서 아시아 선교의 전략적 역할'을 주제로 강의했다. 30여 명의 아·태 지역 침례교회 리더가 참석한 자리에서 리 교수는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열쇠로 다음세대를 지목했다.

리 교수는 "다음세대가 아시아 선교의 미래다. 새로운 세대인 아시아 젊은 지도자들이 선교라는 도전에 나서고 있다"며 "특히 젊은 전문직 종사자와 대학생들이 전략적 선교를 위해 부름에 응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효과적인 선교를 하려면 세대 간 파트너십, 의견의 상호 수용이 이뤄져야 한다"며 "또 아시아 선교가 확대하려면 문화·세대간 협력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의 직후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선 다음세대 육성을 위한 한국교회 역할도 설명했다.

그는 "한국교회는 오랜 선교의 역사와 훌륭한 기독 원로를 보유한 나라"라며 "그들의 경험과 신앙 유산을 기록으로 남긴다면 다음세대와 다른 아시아 국가 선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음세대를 강조하며 아시아를 주목한 데는 이유가 있다.

리 교수는 "교회의 무게중심이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비서구 국가에서의 기독교 영향력이 확대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최근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거나 기독교 박해가 심한 나라들인 인도 캄보디아 부탄 중국 등의 국가에서도 선교를 위해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리더십 훈련을 하고 있다.

리 교수는 "중국은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다"며 "가정에서 (다음세대에게) 선교에 대한 인식을 가르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캄보디아 교회들은 리더십 훈련을 활성화하고 있다. 교회들은 목회자와 지도자를 대



상으로 '교회의 선교'와 '선교적 리더십'에 관한 교육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제도 있다. 계급사회가 뿌리 깊게 남아있는 인도와 부탄은 문화적 장벽과 세대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 '세계 그리스도인 백과사전'에 따르면 아시아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60%를 차지하지만, 기독교인은 8.2%에 불과하다. 이슬람교는 2020년을 기점으로 불교를 밀어내고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신도(27.4%)를 가진 종교가 됐다. 불가지론자와 무신론자도 급증하고 있다.

강의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선 참석자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 인도에서 온 한 목사는 "아시아 선교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익한 강의였다"며 "인도 전역에도 하루빨리 복음이 전파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MZ세대 "교회 공동체 진부하고 재미없다"

2022 청년·미래·선교 서밋, 문답하며 목회자-청년 의견 나눈다

"한국교회가 청년사역을 하는데 있어서 개선할 점이 무엇일까요?"

청년사역 단체 담당자와 교회에서 청년들을 이끄는 목회자들이 MZ세대 기독청년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MZ세대의 답은 따끔하고 날카로웠다. "교회가 청년을 인격적으로 대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 안 다니는 청년에게는 교회 공동체가 진부하고 재미없다는 인식이 있어요."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와 학원복음화협의회, 선교한국이 5-7일 강원도 평창 켄싱턴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2022 청년·미래·선교(청미선) 서밋' 현장에

서 나온 얘기다.

이번 서밋은 교회 청년부 책임목사 20여명과 청년단체 담당자 20여명,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추천한 청년대표 등이 9개 조에 끌고루 배치돼 동일한 질문을 두고 각자의 의견을 교환했다. 첫째 날은 청년사역의 문제점과 장애 요인은 무엇인지를 진단했다. 익명을 요청한 A씨는 "청년에게 소속감이 중요하운데 교회 공동체는 재미없다"며 "무엇보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청년에게 교회 문턱은 높고 코로나19 이후 시선도 안 좋아졌다"고 했다.

MZ세대가 기성세대인 교회 목회자와 선교단체 대표들에게 요청한 건 '공감'과 '경청'이다. 취임준비생인 박선민(24)씨는 "우리를 MZ세대로 구분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맡고 맡겨주셨으면 한다"며 "무엇보다 청년들의 고민과 아픔에 대해 교회가 함께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조별 모임에서도 비슷한 의견들이 나왔다. 청년인 B씨는 "교회가 청년에게 비전이 없다고 느끼는 듯하다"고 했고 C씨는 "개인의 신앙은 다른데 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청년에게 권면한다"고 지적했다. 청년 장로를 세우는 등 교회 청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



회를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청년사역의 개선 방향도 모색됐다. 이번 서밋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비롯해 1년에 한 번씩 오프라인으로 만나거나 SNS 등을 활용해 교류하는 방법도 제안됐다. 선교단체와 교회 청년부의 강단 교류도 요청했다. 이 밖에 청년을 위해 활용 가능한 아이디어도 나왔다. 기독교 사업체에서 청년들이 아르바이트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거나 청년들이 즐기는 문화를 교회 안에서 즐길 수 있는 방법 등이다.

무엇보다 청년사역을 위해 한국교회와 선교단체가 연합해야 할 때라는 데 공감했다. 조이선교회에서 활동하는 대학생 홍원희(25)씨는 "서밋을 지역별 모임으로 활성화해 지역교회, 선교단체로 나눈 이야기들을 구체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천 주안교회에서 40대 청년부를 이끄는 이홍섭 목사는 "교회와 선교단체가 서로 이해하며 연합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감신대에 '신석구 목사 기념홀' 개관

시종일관 조선의 독립을 요구하며 일제에 맞섰던 목사

그는 독립운동가였다.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이었다. 이들 33인 가운데 일부는 재판받는 과정에서 '독립이 아닌 청원'을 한 것이라고 태도를 바꿨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던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시종일관 조선의 독립을 요구하며 일제에 맞섰다. 이 같은 스토리를 지닌 인물은 바로 신석구(1875~1950) 목사다. 수표교교

회(김진홍 목사) 6대 담임목사를 지낸 그는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옥고를 치렀고 해방 이후엔 북한에서 반공운동을 벌였다. 한국 정부는 그의 삶을 기리기 위해 1963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기도 했다. 신 목사의 숭고한 인생을 되새겨볼 수 있는 기념홀이 최근 서울에 들어섰다. 서울 서대문구 감리교신학대에 만들어진 '신석구 목사 기념홀'이다. 지난



6일 감신대 웨슬러채플에서는 기념홀 봉헌을 기념하는 감사예배가 열렸다. 봉헌예배 이후 이어진 개관식에서는 '신석구 목사 흉상 제작식'(사진)이 거

행됐다. 흉상은 그가 수표교교회에 담임목사로 사역하며 31운동에 참여했을 때의 모습을 재현한 것이었다.

교회선교의 선순환 (virtuous cycle) (18)



조용중 선교사
(KWMC 사무총장, Ph.D)

선교 잘하는 교회는 선교사와 거리가 좁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었으나 선교에서는 밀접한 관계형성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며칠 전 미주한인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선교사를 만났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아시아의 닫힌 나라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는 교회와의 거리가 멀리 느껴지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였다. 파송선교사로 누구보다 가까울 수 있는 교회가 팬데믹 기간에 너무나 멀리만 느껴졌다는 것이다. 오히려 작은 교회라면 그렇지 않았을 것 같다는 말을 들으며 교회와 선교사와의 거리감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선교를 잘하는 교회는 크기와 상관없이 선교사와의 거리가 멀리 느껴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아름다운 선교 동역은 거리감이 가까울 때에 이루어진다. 교회는 선교사를 단순히 후원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일한다는 생각을 한다. 담임목사의 선교관 만큼 교인들의 선교관은 비례한다. 담임목사가 선교사를 선발하여 선교를 후원하는 것으로 선교를 다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나의 가족이 나의 친한 친구가 선교지에 나를 대신해 나가서 감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처음부터 선교사와 함께 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신학교에는 어느 특정한 학년의 졸업생들이 많은 숫자의 선교사를 배출하여 선교현장에서 선교를 잘하고 있기도 하고, 동기생 목회자들은 선교적인 교회를 만들어가는

경우를 자주 듣고 보게 된다. 이는 학교생활 가운데 만들어진 우정이 선교사들과의 거리를 좁혔고, 친구 선교사들을 향한 마음들이 결국 선교적 목회를 하게 만든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선교사들과의 깊은 관계 형성이 교회선교 활성화에 관건이 되는 것이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가까운 가족이 선교지에 나가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선교사와 교인들의 거리를 좁혀줄 때에 교회선교 활성화가 일어난다. 선교사의 가족이 교회에 중요한 직책에 남아 있을 때에 선교에 열심을 더 내는 경우가 현실에는 많이 있다. 그래서 장로님의 딸

을 것이다. 그렇게 선교사가 파송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주 만날 기회가 없을 때에는 마음에서 멀어져 가는 것이다. 그렇



나를 대신하여 선교지에 간 선교사 나의 가족이며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이 선교사로 나갈 때에 교회가 선교를 가장 열심히 한다는 말을 우스개 소리로 하기도 한다. 그만큼 나의 가족, 우리들의 선교사가 선교지에 있다는 생각이 선교사에 대한 거리감을 좁혀주는 것이다.

선교사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성도들과 만나는 기회를 자주 가져야한다. "Out of sight, out of mind" 는 다른 것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선교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 교회 출신의 선교사가 만들어 지는 것이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자라왔던 친구들이 있다면 더욱 좋

기에 선교사를 초청하여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교회는 전체 모임에 선교사를 초청하여 선교지 보고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거나 구역 모임, 부서 모임 등에 초청하여 삶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거리감을 좁히는 데 더욱 좋다. 그렇지만 큰 교회들에서는 잘 알려져 있거나, 특이한 간증을 들을 만한 선교사들을 강사로 초청하는 경우는 많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선교사들은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럴 때는 작은 그룹들의 모임, 특히 선교

사를 후원하는 그룹들을 개별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선교사 가정의 비슷한 가정들과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다. 선교사 가정의 자녀들과 비슷한 나이포대, 친구가 될 수 있는 가정들과 만남을 가지도록 주선하는 것도 선교에 도움이 된다. 이럴 때에는 선교사 가정을 "Adopt-A-Family"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좋다. 선교사 가정들에 대해 소개하고 교인들이 가정의 자녀들끼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하고 교회를 방문하게 될 때에 그 가정에 머물러 관계를 더 밀접하게 가질 수 있게 하는 것도 선교에 큰 도움이 된다. 이 보다 더 직접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아들들을 맡아 고등학교를 졸업하도록 도왔다. 결과적으로 두 아들들은 훌륭한 의사와 재정전문가가 되었고 맛있는 크리스찬 글로벌리더로 성장하였다. 얼마전 그 가정을 도왔던 장로님과 선교사 부모를 만났을 때에 그 장로님은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되었는 것처럼 기뻐하며 본인들이 도울 수 있었던 기회를 오히려 감사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람된 선교의 동역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은 선교사 가정과의 거리가 좁아졌을 때에 가능한 것이다. 물론 이렇게 자녀를 맡아 키운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과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힘든 일이다. 그렇지만 그런 마음 자세는 곧 선

고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가정을 갖게 하신 분이 선교를 명하신 분이려면,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고, 허락하신 자녀들도 선물로 받아 잘 키우는 일도 선교의 중요한 부분이다. 현지인들은 선교사 가정을 보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가정을 롤모델로 보고 배우기 때문이다. 건강한 가정 생활을 보여줄 때에 복음의 메시지는 더욱 진리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선교사 가정들에게 자녀 양육은 너무나 큰 부담으로 선교사의 많은 삶의 부분을 육조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여성독신 선교사들이 선교사역을 잘 감당할 예가 선교역사에 많이 있다. 참으로 존경스러운 일이지 모든 것이 독신으로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에 가정을 가진 선교사들에게 행복한 가정생활, 자녀 양육 등에 대한 교육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모두가 그렇듯이 닦쳐보지 않은 일들은 큰 관심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선교사들의 일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는 것도 생애주기를 통해 선교사 돌봄의 큰 틀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선교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선교를 위해 쓰임 받도록 발굴하고 격려하고 적절한 곳에 배치하여 온전한 교회의 몸이 각자의 기능을 잘 감당하도록 힘써야 한다. 교회성도들과 선교사와의 거리가 멀 때에 한 몸이라는 개념이 들지 않는다. 그렇지만 교회의 성도들이 선교사들과 거리가 좁혀지면 전체가 한 몸으로 느낄 수 있게 되고 한 몸인 교회를 세우려는 일을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선교사와 교회의 거리가 좁아질 때에 선교는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교사와의 거리감을 좁히도록 지역교회들은 노력해야 할 것이다.

dr.yongcho@gmail.com



인문학으로 읽는 바울의 생애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USA대표)

36. 신약에 나타난 로마군 백부장

사도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될 때부터 총 4명의 백부장을 만납니다. 예수님도 백부장을 만났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복음서에 두 사람의 백부장이 등장하고, 사도행전에는 5명의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신약성경에는 총 일곱 사람의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모두 로마 군대 백부장(Centurion)들입니다.

7명의 백부장 중에 세 사람은 믿음으로 칭찬을 받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친히 오심을 만류하며 말씀만 하시던 족하다는 믿음을 고백해서 예수님 칭찬을 받았던 백부장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집행을 책임졌던 백부장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것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마 27:54)라고 고백합니다. 셋째

는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그는 모범을 보인 믿음의 지휘관으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는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이 만난 네 백부장은 바울의 체포와 구금 그리고

호송합니다. 7명의 백부장 중에 두 사람이 이름이 밝혀집니다. 고넬료(Cornelius, 행10:1)와 율리오(Julius, 행27:1)라는 백부장입니다. 이름이 밝혀진 두 백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며 모범적 믿음의 리더십을 발휘한 백부장 고넬료

로마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만나 체포하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천부장에게 보고합니다(행 22:27). 두 사람의 백부장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가이사라 호송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행 23:23). 이들은 바울을 보호하기도 하고, 바울을 체포해 가이사라에 주재하는 벨릭스 총독에게 데리고 가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마지막은 바울을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부장은 그들의 소속 부대도 알려줍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대대(Italian Cohort)소속이었고, 율리오는 황제 대대(Augustan Cohort) 소속이었습니다. 두 부대 모두 전통이 있는 로마 군대의 엘리트 부대였습니다. 이런 백부장들은 유대 사회에서 실존했던 로마 세력들입니다. 다수의 백부장들이 유대 지방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유대인 사회와

문화를 수용하고 심지어 신앙마저 수용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권력을 활용하여 유대인들을 통제하고 군림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로마의 군대조직의 가장 큰 단위는 군단입니다. 당시 로마의 1개 군단은 약 6천 명 정도의 사병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로마 제국 전성기 시절에는 28개의 군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군단은 천부장(Tribune)이 지휘했던 대대(Cohort)가 10개 정도 있었습니다. 보통 대대(Cohort)는 여섯 개에서 8개의 백인대로 구성되었습니다. 백인대는 명칭 상으로 백 명이지만 실질적으로 적게는 80명에서 많게는 12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백인대를 이끄는 지휘관

중요성이 보입니다. 로마의 군대는 백부장(Centurion)이 지휘했던 '백인대'를 기초로 전투부대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만큼 백부장이 중요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로마가 치룬 전쟁들에서 백부장들이 세웠던 혁혁한 전과를 기록합니다. 또 역사가 폴리비우스(Polybius)는 자신의 '역사(Historia)'에서 평시 군대 관리와 부대 훈련에 백부장들의 중요한(Crucial) 역할을 했다고 강조합니다.

백부장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병사들의 군 생활의 질은 전적으로 자신이 속한 백인대의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나에 달렸었다고 합니다. 로마 군대에 관한 논문이 백부장의 부대관리에 관한 논문이 많습니다. 평시 부대관리와 전

주었습니다. 타키투스 '연대기'는 백부장 '루실리우스(Lucilius)의 별명이 '다른 것을 갖고 와'라고 소개합니다. 그가 병사들 매질을 시작하면 어김없이 지휘봉(Vitis)이 부러졌고, 그는 '다른 지휘봉을 갖고 와'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런 체벌이 허용되었습니다.

백부장의 역할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은 전투 현장이었습니다. '병사들이 전쟁 터에서 살아남느냐? 죽느냐?'는 백부장의 역할에 달렸던 것입니다. 로마군의 전쟁은 백부장이 승패를 좌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군의 전쟁은 백부장의 전쟁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나 군단장은 전투에서 백부장의 전술적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백부장에게는 특혜가 있었습니다. 우선 효율적으로 병사를 통솔할 수 있도록 상당한 재량권이 보장된 지휘권을 부여했습니다. 또 군복무를 마치고 나면 국가에서 주는 연금 혜택도 상당했습니다. 로마는 정복지에 퇴역 군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였습니다. 면세와 자치권이 보장되는 이런 도시에는 병사 출신의 예비역 군인들이 거주하였고 백부장은 이런 퇴역군인 도시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chap1207@hotmail.com

백부장(Centurion)은 로마군의 기초가 되는 로마군의 핵심이었습니다. 백부장은 군에서 복무한 경험이 보통 15년 이상이 된 노련하고 용감무쌍한 병사들 중에서 선발되어 임명되었습니다. 백부장은 비록 병졸에서 선발했지만 장교였고 혜택도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병들엔 그들이 꿈꿀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직책이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군대 시스템을 살펴보면 백부장의 역할과 위치의

투력 유지는 백부장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에게는 상당한 재량이 주어졌습니다. 대부분의 백부장은 모범을 보임으로 리더십을 발휘했었습니다. 삶으로 믿음을 보여준 고넬료는 모범적 리더십을 발휘했던 당시 백부장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로마는 효과적 부대관리, 전투력유지 그리고 전쟁 수행을 위해 백부장에게 병사 체벌(Corporal Punishment)권을

매일가정예배

김덕수 목사(하늘소망교회/ 생더지역원 LA지부장)
dsukim@gmail.com

월 소견(所見)보다 소명(召命) (삿 21:25) 찬 67장

사사기 19장~21장은 '레위인의 첩 사건'입니다. 어떤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베들레헬 출신의 한 여인을 첩으로 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행음을 하고 자기 집 베들레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첩을 찾으러 베들레헬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해가 쬐고 베냐민 땅 '기브아'라는 동네를 지나가다가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그 날 밤, 레위인은 자기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주는 상황이 되었고 첩은 밤새

윤간당하고 죽었습니다. 레위인은 그 첩의 시체를 열두 토막을 내어 온 이스라엘에 보냈고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전쟁을 벌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레위인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온 백성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인 소명대로 살아야 합니다.

화 떡집을 떠난 슬픔 (룻 1:1~5) 찬 387장

룻기는 사사시대를 살았던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품고 있는 복음에 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다윗을 등장시키는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헬에 흉년이 들어 엘리멜렉은 그의 가족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베들레헬의 뜻은 '떡집'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떡은 '하나님의 말씀' 혹은 생명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엘리멜렉은 상황과 조건 때문에 떡집을 떠났습니다. 떡집

을 떠난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은 '사망'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가치들이 너무나 좋아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일시적으로 만족을 줄 수 있겠으나, 생명의 떡집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절망을 경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양식인 '산 떡'이기 때문입니다.

수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 (룻 1:6~22) 찬 527장

엘리멜렉과 말론, 기론의 죽음 후에 남은 가족은 나오미와 그녀의 두 자부(오르바와 룻)입니다. 나오미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장 탁월하고 위대한 결정을 합니다. 떡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기쁨)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고통)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텅 빈 존재로 만들어서 돌아오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텅 비게 하시는 그 지

점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은 오히려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이 됩니다. 마치 탐자에게 있어서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흥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공평하게 된' 그 순간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은 아버지가 돌아갈 중대한 결심을 하는 복된 순간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절망의 순간을 복된 전환점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역전될 수 있습니다.

목 기막힌 은혜 (룻 2:1~16) 찬 486장

베들레헬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의 인생은 역전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온 베들레헬에 유력한 사람 '보아스'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려 갔던 밭이 하필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룻이 이삭을 줬던 그날 보아스가 그의 밭에 나와서 룻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의 의지와 계획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연출해 내신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룻과 보아스는 각자 다른 상황

과 이유로 그 장소에 오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시는 재료로 삼으셨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두 가지 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인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자신의 식탁인 십자가로 초대하여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배불리 먹이십니다.

금 칭의 후 성화된 삶 (룻 3:1~13) 찬 303장

보아스는 룻의 '기업 무를 자' 중 한 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중에 '고엘'이라고 하는 '계대결혼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약자 보호법이며, 이 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룻은 자신의 고엘인 보아스의 타자마당에서 보아스가 누운 자리에 들어갑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러 갈 때 곁에 신부의 단장을 합니다. 묵묵하고 기쁨을 버리고 의복을 입고 보아스에게 갑니다. 이 모

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가 사랑인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정결 예식에 참여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위한 속죄를 하는 것(렘 14:18, 29)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성도가 입을 예복은 '거룩한 행실(계 19:8)'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보혈로 정의 된 후에 성화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토 해피엔딩 (룻 4:21~22) 찬 452장

룻과 보아스는 결혼하게 됩니다.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그 결혼을 축복합니다. 보아스는 야곱과 같은 복을 받고, 룻은 라헬과 레아와 같은 복을 받으라고 축복했습니다. 또한 유다의 복을 받으라고도 축복하였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축복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유다는 인간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여 오벧을 낳았습니다. 오벧은 장차 다윗의 할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룻은 이방 사

람이었고, 여인이었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과부였고,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정서 속에서는 가장 낮고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떡집을 떠난 자의 죽음으로 시작된 룻기는 떡집으로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생명으로 끝납니다. '베들레헬'로 돌아오는 장면을 분기점으로 생명의 이야기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반전과 역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음악 이야기(20)



윤임상 교수
(월드미선대학교대학원)

클라렌스 디킨슨의 주의 이름은 크시고 영화롭도다

위약효과(placebo)라는 의학 용어가 있습니다. 맞지 않는 약인데 맞는 약이라고 믿고 복용하면 원하는 효과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배가 아픈 사람에게 급한 나머지 감기약을 위약약이라고 하면 그는 그 약을 먹고서 속이 편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 2차대전에서 병사들을 대상으로 큰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의약무효(nocebo)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효과가 탁월한 명약이라도 '효과가 있을까?'라고 의심하면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조되는 이야기이지만 이 모든 것은 약 자체의 성능보다 이에 대한 믿음이 그 효과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믿음이 가짜를 진짜로 만들게 하고 진짜를 가짜로 만들어 버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큰 부흥이 있었던 1970-80년대에 교회의 예배는 뜨거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확신 속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드리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찬양이 예배를 뜨겁게 하고 교회의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help in ages past)를 주 메시지로 담아 안팎에 넣어 작곡을 하였습니다. 이 찬송은 시편 90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모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신앙과 불평, 반역을 일삼는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탄원의 기도 시입니다.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내면의 소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하며 유한한 인간의 덧없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사랑과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인간들은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음을 그의 기도 속에 밝히고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이다" (시편 90:1-2) 이 시편을 읽은 가 당시의 언어로 파라프레이즈(Paraphrase) 해서 찬송 시를 만든 것입니다. 그가 운율적으로 의역을 하여 우리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위대하심에 대항하여 생

이 시대의 변화에 매 순간 점검하여 하나님께 맞추는 바른 믿음의 고백

한국 교회가 이러한 큰 부흥의 시기에 예배에서 부른 성가곡 중 '주의 이름은 크시고 영화롭도다(Great and Glorious in the name of the Lord of Host)'라는 안팎이 있습니다. 이 곡은 클라렌스 디킨슨(Clarence Dickinson, 1873-1969)이 쓴 곡으로 그는 20세기 초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음악 작곡가 중 한사람으로 미국 교회음악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오르가니스트요, 작곡가, 그리고 지휘자였습니다. 그는 전통적 안팎에 기존하는 찬송가를 도입하여 변화를 주도했던 작곡가였습니다. 그가 갖고 있던 음악 철학은 작곡 스타일, 또 곡을 해석하는 기준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에 꾸준히 새로운 것을 탐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1962년 미국 합창 지휘자 협회(ACDA - American Choral Director Association)가 주관하는 컨퍼런스에서 주제 강연 속에 "우리는 항상 작은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 어떤 예측을 하는 것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것들에 도전해야 하고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고 하며 새로운 변화에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라고 지휘자들에게 바른 믿음과 모험 정신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디킨슨은 18세기 초 영국의 찬송가 아버지라 인칭받는 아이작 왓츠(Isaac Watts, 1674-1748)가 쓴 찬송가 '예부터 도움 되시고, (O God our

명의 짧음과 인간의 보잘것 없음을 확실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는 찬양으로 가사를 만들었습니다. 무척이나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새로운 변화에 주저하지 말고 도전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바르게 찬양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매 순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바른 믿음의 고백을 가져야 합니다. 종교 철학자 정재현 교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마치 아편중독이라는 진단이 나왔음에도 아직도 이런 진단을 외면하고 묻지마 믿음을 외치고 있다. 그렇기에 이런 종교중독증을 치료하기 위해 서라도 묻지마 믿음에 대해 물어야 한다" 고 꼬집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돌이켜 보면 이런 '묻지마 믿음'을 내세운 신앙인들이 무종교인들에게 더욱 교회에 관심없게 만드는데 일조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바른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믿음의 본질을 바로 알고 이를 바르게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 순간 점검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필요와 원함에 맞추어 달라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과 능력을 믿어 그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하나님께 맞추는 믿음의 행위 그리고 모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iyoon@wmu.edu

2022년 성경 암송 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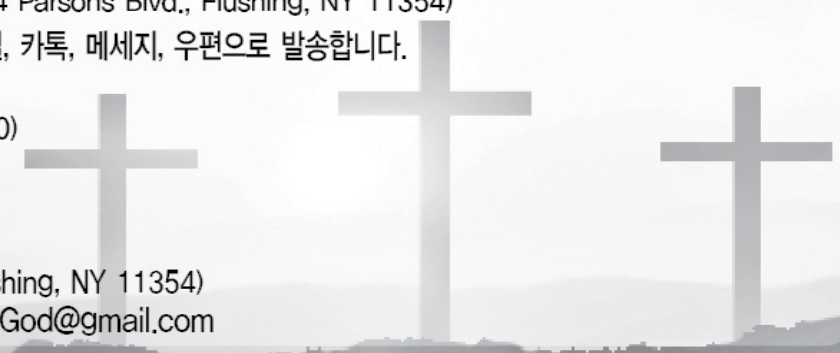
- 최우수상: 상금 \$1000과 메달 및 상장
한국어부(영어부 동일)
- 1등상: \$500
- 2등상: \$300
- 3등상: \$150
- 장려상: 0명 - 상품
- 회전소성과 최고령상: 상품 및 상장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인간 언어로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 암송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두는 일이며 기도 생활을 더 확고하게 해 줍니다. 성경을 많이 자주 암송 할수록 바로 내가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확신 있게 서 있을 수 있는 성경 암송 대회에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권합니다.

일시	2022년 10월 10일 (월요일) 오전 9시
장소	미정(추후 발표)
참가 자격	한어부 - 미국 내 한인 교회(EM 포함) 및 한인 기독교 단체 소속(연령 제한 없음) 영어부 - 미국 내 한인 교회(EM 포함) 및 한인 기독교 단체 소속 재학생 (초등학교 - 대학원)
암송 성경책	1. 한국어 성경: 개역, 개역 개정, 새번역 중 2. 영어 성경: NIV, KJV(or NKJV) 중 택일
신청서 제출처	The Lord's Table Mission USA (주소: 35-14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4) * 신청서와 암송 범위는 연락 주시면 곧바로 이메일, 카톡, 메세지,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참가비	\$30 (식사와 간식 및 사무비 - 7월 30일 이후 \$50)
신청 마감	9월 10일 우편물까지
문의처	주님의 식탁 선교회 (35-14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4) T. 347-559-3030, 718-886-3730, appa2God@gmail.com

공동주최: 주님의 식탁 선교회, 중앙장로회, 주관: 하늘가족
광고후원: 뉴욕교회협의회, 단비기독교TV, CTS뉴욕, KCBN 미주기독교방송, 국민일보 USA, 미주크리스찬, 복음뉴스, 아멘넷, 뉴욕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상품후원: 뉴욕교회 (회장: 김희복 목사), 뉴욕교회협의회 (김일태 이사장), 미주예장합동 (회장: 안재도 목사), 펠릭한인회 (오대석 목사)
행사후원: 뉴저지평화기도원 (김중철 원장), 뉴저지연하수 (대표: 김 기) *후원 하실 분은 연락 주세요

GOD IS LOVE



가이아나

안녕하세요?
강대성과 감미희 주 안에서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기도 동역자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가이아나에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1991년~2002년 사역 후, 다시 2022년 2월부터 다시 이곳에서 사역하기 시작한 후, 지금까지 저희를 잊지 않고 기도해 주고 있는 캐더린교회를 이번 8월에 방문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이아나에 다시 오게 된 것이, 혹시 이 교회의 끈질긴 기도의 응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버비스 지역의 캐더린교회는 교회 앞 십자가 밑에 5번 사진처럼 우리 가족의 사진을 걸고 저희의 방문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가이아나에서 태어나 세례를 받을 때 딸과 아내와 제가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며 저희를 위해 기도했었다고 합니다. 가슴 뭉클했습니다.

그 당시 캐더린교회는 교회

건물이 없어서, 교인들이 벽돌 한 장씩 매주 헌금하여 한 장씩 벽돌을 쌓아 올리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미국의 중현선교교회가 헌금하여 마침내 1992년도에 교회 건축을 마치고 헌당식을 하였습니다. 그때 조그마한 코코넛 나무를 기념 식수하였는데, 지금 가보니 저희 키보다 3~4배 크게 자라있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에 만났던 케이트 헤인즈 성도님은 목사님이 되었고, 지금은 가장 가난한 지역에 소피아교회를 개척하여 목회를 잘하고 있었는데, 지난주 방문하였고, 기도 여행을 위해 기도하기를 요청했더니, 여러 교인이 함께 기도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과거에 뿌려놓았던 복음의 열매를 확인하며, 이들이 이제는 선교동역자로 함께 사역해 나가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다음의 기도제목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코로나19 상황이 선교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될 만큼 안정되도록!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는 듯하다가 다시 확산하기도 하는 가운데, 가이아나에서 선교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될 만큼 상황이 안정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9/9~9/15 "가이아나 횡단 기도여행 2022" 계기로 가이아나에 성령의 계절이 오도록!

9/9(금)~9/15(목) "가이아나 횡단 기도여행 2022" (조지타운~레벤펀)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따라 성령의 계절이 가이아나에 오는 계기가 되도록 기도하며 안전하게 다녀오기를 소원합니다. 사탄의 견고한 진이 깨지도록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현재까지 \$1,795불이 후원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 9월~11월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뿌려진 복음 씨앗들이 잘 싹이 나도록!

9월에는 삭스칼리 아메리칸 교회(에스퀴보강), 기도여행(레벤펀), 캐더린교회(버비스



강), 제임스교회와 요한교회(웨이커남섬, 에스퀴보강) 등에서 사역합니다. 10월에는 베드로교회(테메라라강 동부해안), 안파베이교회와 삭스칼리교회(에스퀴보강) 등에서 사역합니다. 11월에는 군총교회(에스퀴보강 서부해안)에서 사역합니다. 계속 초청하는 교회들이 늘고 있습니다.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4. 강대성 감미희 선교사가 성령 충만하고 육체적으로 강건하여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강대성 선교사의 통풍은 오른쪽 뒤통지에 처음 증상이 나타났다가, 진정된 후, 1달 후에 왼쪽 손목에 증상이 재발한 후, 현재까지 음식조절과 운동하며, 더불어 잘 다스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감미희 선교사의 왼쪽 귀의 바람 소리가 나던 것은 진정이 되었으나, 오른쪽 귀의 돌발성 난청은 고정되어 거의 들을 수가 없는 중인데, 손발에 샌드플라이에 물림으로 인한 가려움증세가 심하여 피부가 검게 변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성령충만하고 육체적으로 강건하여, 선교지에서의 잦은 여행과

교회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도 기억하며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도 제목들을 알려주시면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중보 기도해 주심의 응답으로 저희는 이곳 가이아나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냄으로 인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샬롬! 가이아나에 성령의 계절이 오기를 기도하며...

2022년 9월 1일
강대성과 감미희 선교사 드림



선교 편지

러시아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한 형제 된 사랑하는 선교기도 동역자분들께 러싱 썬트뻘레브르브르 그에서 문안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곳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하여 많이들 힘들어 하고 있으며 끝이 보이지 않는 길고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기분입니다. 이곳 뉴스에는 사태에 대한 내용은 거의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참 잘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려운 입국을 마치고 지금은 잘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저희 교회 청년 가정 2가정은 러시아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며 한 가정은 벌써 미국으로 떠났고 또 한 가정은 자기 고향인 타쉬켄트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속히 모든 것이 정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교회 야외예배를 갖습니다. 핀란드만 모래사장에서 예배와 찬양 그리고 러시아 사

실릭과 라인덴스로 참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2. 모스크바의 한인선교사를 초대하여 레위기 말씀 사경회를 갖었습니다. 토요일은 종일 교회에서 말씀으로 뜨거워진 하루였습니다. 깊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3. 청소년여름성경학교를 7월 18일부터 일주일간 미르수양관에서 청소년 22명과 섬김이 10명이 함께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있었습니다. 수양회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4. 안나/안바르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안나는 선천성면역 결핍증으로 항상 조심을 해야 하는 아가씨인데 수양회 기간에 교사로 섬기다가 벌에 쏘여 벌독을 이기지 못하여서 아주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여 제가 긴급 중보기도 부탁을 드렸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기도도 동참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로 많이 호전되어 결혼식을 무사히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릎에 아직도 통증이 너무 심해서 층계를 오르내릴 때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함께 기도도 동참하여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5. 티디팅멤버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10월 5-8일까지 VISION TD 영성세미나가 썬트뻘레브르브르에서 열리게 됩니다. 준비 기도회로 현재 모이고 있습니다. 40-50여명 참석이 목표입니다. 팀 멤버는 60-70명입니다.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시국이 어려울 때라서 사람들이 위축될 수 있지만 그러기에 더욱 찬양과 말씀의 축제로 나아갑시다.

6.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니나가정을 식사초대하여 전도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외동딸 양겔리나와 엄마인 니나씨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복음에 대한 목마름이 더욱 일어 날 수 있도록 한국과



미국을 통하여 이곳 러시아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간증과 간단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열매는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7. 기도제목
▲ 10월 5-8일까지 있는 VISION 티디팅영성세미나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100여 명이 참석하는 집회입니다. 성령님께서 필요한 모든 부분

들이 다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50여명 참석과 팀 멤버 70여 명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집회 시간 내내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양겔리나 가족이 꼭 복음에 진솔한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설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

부탁합니다.

▲ 고려사람교회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사 강의와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회를 통하여 고려사람교회에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영적 부흥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미르신학교 개강이 9월 6일입니다. 꼭 필요한 학생수가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도수, 이정희 선교사

청빙공고

(교구담당 부목사, 교구 및 심방담당 여자전도사, 드림 연주자)

캘리포니아 부에나파이크에 위치한 감사한인교회에서 교구담당 풀타임 부목사, 교구 및 심방담당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여자전도사, 찬양대 파트타임 드림 연주자를 다음과 같이 청빙합니다.

교구담당 풀타임 부목사

1. 자격요건
 - a. 신실하게 팀 사역에 동참할 사역자
 - b. 공인된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목사
 - c. 미국 거주 및 취업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 분
2. 담당 사역
 - a. 교구 담당 및 교회 전반의 사역
3. 제출 서류
 - a. 이력서(사진 포함)
 - b. 자기소개서 (신앙배경, 신앙관, 은사, 장단점, 사역철학, 가족소개 등)
 - c. 최종학력 증명서와 목사 안수 증명서
 - d. 추천서 2부
 - e. 최근 6개월 내 본인 설교 동영상 혹은 링크 2개

교구 및 심방담당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여자전도사

1. 자격요건
 - a. 정규 신학을 마치신 분
 - b.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으신 분
 - c. 교구 및 심방의 5년 이상 사역 경험 있으신 분
2. 제출 서류
 - a. 이력서(사진 포함)
 - b. 자기소개서 (신앙관, 은사, 사역철학, 심방 및 교구 사역 경험, 앞으로의 사역각오, 가족소개)
 - c. 최종학력 증명서

파트타임 찬양대 드림 연주자

1. 사역 일정

주일 예배: 1부(7:30), 2부(9:30), 3부(11:30)의 예배 반주(협의 가능)
금요 예배: 저녁 7시 30분 예배 반주 등
2. 제출 서류
 - a. 자기소개서
 - b. 신앙고백서

<서류 제출>
kogh@thanksgivingchurch.com
모든 서류는 PDF파일로 보내주시고, 서류 접수는 E-mail로만 받습니다. 청빙 절차 면접은 지원 마감후 서류 심사 후에 개별 통지합니다. 서류마감은 2022년 9월 25일까지입니다.

<문의사항>
교회 웹사이트: www.Thanksgivingchurch.com
교회 주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담당자: 고귀한 목사 (714-521-0991)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희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성자 기자의 **바이블에세이**

방황하는 지성인

니고데모라고 이름하는 지성인이 밤늦은 시각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는 지금 나의 심금을 울린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한 계율과 규칙으로 율법주의자요, 모든 사람 앞에서 절대로 경건해야 하는 바리새인이요, 사회적으로 명예를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만 하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요, 그리고 최고의 지성인답게 살아야 하는 권태로움의 굴레에 얽매어 있는 사람, 너무나도 많은 재산 때문에 참으로 거추장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는 한 가련한 인간이 탈출구를 찾지 못해서 고뇌하고 있다.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난다. 이 사람은 참으로 정신적 공허함과 허탈감 가운데서 너무나 긴 시간을 방황했다. 이 사람은 영적 기갈을 느끼면서도 문제의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다. 종교적인 경

건과 엄격한 계율, 사회적인 명예나 권세가 그리고 엄청난 재산과 심오한 지식이 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지는 못하고 도리어 말할 수 없는 허탈감과 고뇌를 주었나 보다. 니고데모는 오랜 방황과 갈등 가운데서 고민하다가 마침내 나사렛 예수님을 찾았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기까지는 거듭되는 망설임과 주저 끝에 내린 대단한 결단이었다. 자신의 그 알량한 위신과 체면이 지금까지 그를 가로막은 것이다. 그러나 그는 결심했다. 이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절박감이 그를 이 길로 내몬 것이다. 그는 밤중 시간을 택했다. 다른 사람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서다. 아직도 체면치레의 누추한 걸음을 벗어버리지 못한 니고데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나를 발견한다. 체면과 위신이라는 낯은 옷이 얼마나 나를 감싸고, 나를 남답지 못하게 만들었는가? 나는 선한 삶의 내용과 그 열매의 유익을 알면서도 과감하게 낯은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내가 정말 미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예수님께 나온 니고데모의 질문과 대답은 그에게 방황의 끝을 선고하는 순간이 되었다. 니고데모에게는 긍정과 의문이 있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의 신은 하나님에게서 오신 선생 습니까?”라는 의문이 바로 그것이다. 오늘날 생각이 있는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긍정’과 ‘의문’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통치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날마다 긍정해야 한다.

그러나 자신이 실제로 어긋난 삶의 모습에 대해서 끊임없는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나는 왜 그렇게 말해야 했는가?” “나는 왜 그렇게 행동해야 했는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나는 왜 정말 거듭나지 못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용기가 없는가?” 나는 좀 더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끊임없는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자신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없는 사람. 자신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 자신의 삶에 대한 진지한 통찰력이 없는 사람. 자신에 대해서 울분과 분노를 못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은 무의미한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나온 사람에게 들려진 말로는 너무나도 엉뚱한 대답이다. 그러나 이 말은 정답이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문제의 해결이 곧 세상 나라의 문제 해결의 실마리라는 것을 나는 여기서 깨닫는다. 예수님은 인간 문제 해결의 방법을 이용하여 연역법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려 하지 않고 귀납법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셨다. 그렇다. 여럿으로서 산적한 많은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차라리 하나의 마스터 키로써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좋다.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문제 해결의 열쇠를 제시하셨다. 그 간단한 열쇠는 십자가의 보혈이다. 그리고 물론 표현되는 성령이다.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여기서 나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참된 자신의 참다운 모습을 볼 수 있다. 올바른 자아를 알 수 있다. 여기서 나는 사람의 본질을 배울 수 있다. 이제 나는 방황을 그만 멈추고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여 거듭난 사람의 삶을 살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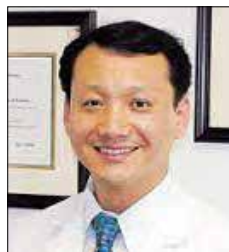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요3:3-4)

인 줄 알고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긍정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

습니까?”라는 의문이 바로 그것이다. 오늘날 생각이 있는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긍정’과 ‘의문’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통치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날마다 긍정해야 한다.

다. 이런 사람은 빈껍데기이고 축경이다. 이런 사람은 쓸모가 없는 존재이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신우신염

방광염은 여성 대부분이 일생에 한 번쯤은 겪는 매우 흔한 요로 질환이다. 방광염이 진행해서 신장에 감염되면 신우신염(pyelonephritis)이 되고, 이때 감염이 혈중으로 들어가게 되면 요로 패혈증(uro sepsis)이 된다. 따라서 흔히 대장균(E.coli)과 같이 방광염을 일으키는 균들이 신우신염과 요로 패혈증의 주된 원인 균이 되는 것이다. 방광염은 흔하게 발생하지만 신우

신염이나 요로 패혈증은 흔하지는 않다. 하지만 신우신염이나 요로 패혈증을 초기에 치료하지 않거나 면역기능이 떨어진 사람에게 발병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질환이다. -50대 후반의 가정주부 조씨는 일주일 전부터 몸이 몹시 피곤하고 오른쪽 허리가 아픈 것을 느꼈다. 그러다가 사흘 전부터는 고열이 나기 시작했고

구토 증세도 함께 나타났다. 또 소변을 볼 때 요도가 따끔따끔한 증상이 있었고, 소변을 보고도 금방 다시 소변을 보고 싶은 증상(빈뇨감)이 심했다. 이를 동반한 식사를 거의 하지 못했다. 오늘 아침에는 몹시 어지럽고

발열감이 심했는데 해열제도 효과가 없어서 병원을 찾아왔다. 조씨는 5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고, 지난 15년 동안 당뇨병을 앓아왔다. 또 10년 전에 자궁경부암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검진상 혈압은 수축기 90mmHg, 이완기 50mmHg로 저혈압이었으며, 맥박은 분당 110회로 빨랐다. 체온은 39.4도로 피부 점막이 건조해 보여서 육안으로도 탈수가 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왼쪽 옆구리를 두드릴 때 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소변검사서 다량의 세균과 백혈구가 검출되었다.

(hydronephrosis, 요도가 막혀서 신우가 확대되는 질환)이 보였다. 조씨는 급성 신우신염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시작했다. 또 수신증 치료를 위해서 막힌 부위를 넓혀주는 스텐트(stent) 삽입 수술을 실시했다. 혈액 배양 검사상 대장균(E.coli)이 검출되었지만 항생제 치료로 완치되었다. 신우신염은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을 앓거나 요로 결석의 구조적 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방사선 치료 등으로 요도가 좁아져 있는 경우 등에는 쉽게 세균 감염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신우신염에 걸릴 수 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요도의 길이가 짧아서 세균의 유입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급성 신우신염은 초기에 효과적인 항생제를 선택해서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재발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찾아서 적절한 치료해야 한다. ▲문의:213-383-9388



방광염이 진행해 신장에 감염

초음파검사로 확인하니 좌측 요도가 늘어나 있었고 수신증

로 요로가 막힌 경우 발생하기 쉽다. 또 선천적으로 비뇨기계

축이 · 취임 감사예배

안나산 기도원(Anna prayer Counseling, Inc)은 김영창 목사를 제3대 원장으로 위촉하며, 이에 이·취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일 시: Sep 22(목). 2022년 오후 4시
장 소: 안나산 기도원 (7910 Peters Rd. Frederick, MD 21704)
연락처: 안나산 기도원 301-874-2983, 2984
문의: 347-330-0334 (김영창 목사)
E-Mail: annaprayer@gmail.com



이임: 2대 원장
문석호 목사



취임: 3대 원장
김영창 목사

안나산 기도원은 40년전(1983년 8월 1일 설립) 마지막 때를 당하여 점점 피폐하고 어두워져 가는 세상 풍조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심을 믿으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으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깨어 기도하는 곳으로, 지역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섬길 수 있도록, 안나산 기도원을 허락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리에 존경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을 기쁜 마음으로 초대하오니,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ep 17, 2022.
안나산 기도원 원장 및 이사 일동